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재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음악교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Research on music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identity of Koryo-saram overseas  
korean elementary school

2024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한 지 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재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음악교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Research on music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identity of Koryo-saram overseas  
korean elementary school

2024년 2월

지도교수 박수정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이 논문을 한지은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4년 2월

주심 (인)

부심 (인)

위원 (인)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 국문초록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한지은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음악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학생의 일부로 존재했던 고려인 아동은 그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려인 동포’라는 집단이 되어 새롭게 우리 사회와 교육의 구성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고려인 1세대, 2세대와는 다르게 1.5세대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지역에서 태어나 국내로 이주해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이들의 정체성, 민족, 국가의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이주의 경험을 해석하고 주변 또래, 가족들과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각자가 적응하는 과정이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이주의 경험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음악교육 활동’으로 한 수업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음악교육 활동은 아동들의 정체성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서 예술적 감수성과 인간의 본능에서 오는 음악성을 이끌어내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동들이 음악교육을 통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일상에서 오는 경험들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방식과 그 특징을 연구하였다(김다현, 2022).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N동 고려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고려인 재외동포 아동들이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음악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수업 지도안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려인 아동들은 학교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교육, 언어를 사용하며 생활하고 학교 후에는 본국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며 국가를 오가며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아동들은 그 사이에 ‘우리’라는 범주를 정해서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본인 자신



이 친숙하게 느끼거나 좋아하는 요소들을 정의한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그 경계가 자주 바뀌고 하나의 국가나 민족으로 정의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혼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들이 한민족인 동시에 이주민이라는 점은 이들에게 특정한 민족정체성에서 오는 행동과 이에 따른 관습적 태도를 요구하는 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선은 아동들에게 행동에 대한 제한을 주는 것이며 동시에 정체성의 긴장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재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들의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음악교육 활동을 통해 또래집단과 공유하며 제약과 긴장감을 해소하고 일상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재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들이 지배적인 문화에 수동적인 태도로 적응해나가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주의 환경에서 비롯되는 혼성성을 자신이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기반으로 보유하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고려인, 재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 디아스포라, 혼성성, 정체성, 음악교육 활동



##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문제 .....	4
4. 선행연구 고찰 .....	4
1) 재한 고려인 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	4
2) 음악교육과 정체성 형성 .....	6
3) 다문화적 접근으로 바라보는 음악교육 .....	7
<b>II. 이론적 배경</b> .....	<b>9</b>
1. 고려인의 국내 이주와 접근 .....	9
1) 한인 디아스포라 고려인 .....	9
2) 국내 이주 고려인에 대한 해석과 접근 .....	11
2. 재한 고려인 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	13
1) 재한 고려인 동포 자녀들의 초국적 삶, 혼성성 .....	5
2)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	9
3. 음악교육과 정체성 .....	22
4. 소결 .....	26



<b>Ⅲ. 연구방법</b> .....	<b>27</b>
1. 연구방법론 .....	27
1) 문헌조사 .....	27
(1) 2022 개정 교육과정 .....	13
(2) 다문화 교육이론 .....	3
(3)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이론 .....	8
(4) 주제중심 통합교육이론 .....	6
2) 전문가집단인터뷰(FGI) .....	73
3) 전문가협의 .....	8
2. 연구 배경 지역-인천 N동 고려인 밀집 거주지역 .....	9
1) N동 주변지역 형성과 거주 .....	9
2) 이주배경 아동의 증가: A 초등학교와 교육환경 .....	4
3) 연구자의 배경	
(1) 연구자의 이해 .....	4
(2) IRB승인 내용 .....	31
<b>Ⅳ. 연구결과 및 논의</b> .....	<b>4</b>
1. 음악교육 프로그램 구성 .....	44
1) 주제중심 통합 수업 .....	4
2) 수업의 단계 .....	5
2. 음악교육 수업지도안 .....	47
3. 프로그램 내용타당도 검증 .....	51



1) 수업지도안의 장점 .....	5
2) 수업지도안의 수정, 보완해야할 점 .....	52
4. 수정된 프로그램 제시 .....	56
<b>V. 결론 .....</b>	<b>69</b>
참고문헌 .....	73
Abstract .....	77
부록 .....	79



## < 표 차례 >

<표 1> A 초등학교 학생수 .....	14
<표 2>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배경 .....	24
<표 3> 1차 수업지도안 .....	84
<표 4> 수정된 지도안 .....	65



[ 그림 차례 ]

[그림 1] 다문화학생수 추이 변화 그래프 ..... 2

[그림 2] 고려인 정체성의 분석틀 ..... 2

[그림 3] 음악 교과 교육과정의 설계 개요 ..... 3

< 부록 >

<부록1> 전문가집단 검증 설문지 .....97

<부록2> 수업기록지 .....18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3년 현재 국내에는 약 10만여명 이상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수는 2016년부터 매년 최소 1만명 정도의 증가 추이를 보이며 비교적 급증하였다. 고려인은 7년 전과 비교해 국내 거주 외국인 전체의 수 중 약 3%에서 5%로 성장하고 인천, 광주, 충남 등 특정지역에 모여 밀집 거주지역을 형성함에 따라 가시적 지리적으로 인식되는 집단이 되었다(김다현, 2022). 이들이 주 근무지인 공단과 가깝고 비교적 월세가 저렴한 곳에 모여 삶의 터전을 꾸리는 연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Y구의 함박마을이 주된 밀집지역이고 이외의 N동 주변에 고려인 밀집 거주지역이 형성되었다. 다수의 고려인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설이 있는 N동 고려인 밀집 지역은 본 연구에서 조명하고 있는 고려인 이주배경 아동들의 일상생활이 전개되는 바탕이다.

고려인 아동들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나 학령기 이전 국내로 이주해 온 초등학생들로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일상에서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들고 중첩하며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상의 경험에서 혼성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디아스포라 주체로서 이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그 특징에 주목하였다. 고려인이 새로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지되는 가운데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접근은 한민족 이주노동자 등 여러 범주사이에서 때로는 한국인과 유사성이 높은 집단으로, 때로는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으로 해석되어 왔다(김다현, 2022).

본 연구에서는 고려인 아동들이 여러 국가와 민족의 범주의 사이에 그리고 이중으로 위치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동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일상과 이에 대한 해석이 드러나는 지점으로 학교에서 하는 음악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인 아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1.5세대 이주배경 아동으로서

양육자에게 이끌려오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여러 범주 사이에서 정체성을 역동적으로 형성하고 그 과정을 보다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주된 연구 현장으로서 학교 생활에서 수업시간을 통해 아동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서 이들이 일상의 경험을 해석하고 참여하는 방식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고려인 아동들의 일상과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이를 통해 고려인 아동들이 주체적으로 이주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수동적으로 이주를 경험하는 미성숙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주 경험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주체적 존재이며 그 지점으로서 일상과 수업을 접목하여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는 제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대신 그 특징과 형성 과정을 살펴, 이들이 한국의 맥락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과 실천을 스스로 찾아간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고려인 아동들이 디아스포라의 위치에서 보여주는 비판적 가능성을 통해 한국 사회가 고려인이라는 집단에 기대하는 ‘민족 정체성’, ‘정체성’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

이러한 고려인 아동들의 정체성,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때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음악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한다.

음악은 소리를 통해 소통하는 예술로 소리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장점과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언어적 소통이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언어적으로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음악을 매체로 한 활동은 크게 가창과 기악의 연주활동과 창작과 감상의 총 4가지 영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역량을 제시하고 음악교과를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역량을 음악적 감성 역량, 창의성 역량, 자기주도성 역량, 공동체 역량, 소통 역량으로 설정하였는데 음악 교과 역량은 총론의 핵심 역량 중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등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내용을 가지고 음악 교과의 특징 따라서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총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음악 교과에서 전반적인 내용학습과 교수학

습 방법에 연관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공동체 역량’과 ‘협력적 소통 역량’은 다양한 음악문화를 개방·포용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며 서로 다른 음악 표현을 존중하며 협력하고 교류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즉,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부, 2022).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재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음악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으며 음악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 개발을 중점으로 두어 구성하도록 한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재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 자녀들이 정체성을 확립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요인을 제시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담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체성의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수업 지도안을 중심으로 수업 과정에서 연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2차 프로그램까지 개발한다.

## 3.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고려인 아동이 재학 중인 A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협의 및 평정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고려인 아동의 입장에서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 및 어려움을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삶의 맥락에 따라 보여주는 다양한 정체성의 모습을 알아보고 이들의 어려움을 음악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알아보고 음악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형성해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을 문제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재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재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지도안은 어떠한가?

## 4. 선행연구 고찰

### 1) 재한 고려인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위해 고려인 자녀들의 정체성에 관련한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저서, 보도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허영훈, 2020년에 의하면 고려인 학생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이 불분명하고 피상적으로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되어있다. 어느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평소 정체성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았고 가정에서도 조부모나 부모도 이에 대해 특별히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경우이다.

해당 연구의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위○는 아버지는 러시아인, 어머니는 고려인이시며 자라온 환경과 부모님의 국적 및 민족 환경이 위○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로○은 유일하게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이다. 10년 넘게 카자흐스탄에서 살았으며 부모님 두 분다 고려인이시지만 고려인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친척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고 지금 현재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본국의 친척들과의 네트워크도 끊어진 상태이다. 한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학교에서도 러시



아어를 사용하는 학생들과 대부분 교류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로 ○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라 판단된다.

즉 다시 말해, 이들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 없으며 혼성성을 비롯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체성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결국에 학교적응과 사회적응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학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보도자료<sup>1)</sup>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충청권 다문화 학생 수가 2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학교 부적응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문화 학생 수는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지만, 일선 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은 더딘 탓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 시선이다. 그 중에서 고려인 자녀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려인의 정의와 정체성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이에 대해 김계르만의 '나는 고려사람이다' 저서에서 보면 다음의 내용이 나온다. "고려사람은 누구인가 우선 그들은 한국인이다. 그들은 한반도의 두 나라와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들은 발생학적 기원이 같고 똑같은 인류학적 타위에 속하고 문화와 언어를 공유한다.<sup>2)</sup> 반면에 그들은 두 한국과 아주 다른 면도 다수 보여주고 있다. 지난 150년 동안 그들의 심성과 민족적 정체성, 언어·관습·요리법, 심지어 외모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고려사람은 자신들의 민족적 기원을 결코 숨기려 하지 않았고 국적이 어딘가를 누군가 물으면 '한국인'이라고 대답한다. 고려사람의 민족적 기원은 항상 여권이나 다른 공식적 기록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들을 그렇게 분류한다. 한인 성인들의 자존감과 민족적 정체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내용만 봐도 고려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문화에 따라 주체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조부모나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 학생들의 정체성은 혼성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학생들은 어릴 때 모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에 다양한 형태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1)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336>- '부적응' 명에 쓰고 떠나는 다문화 학생들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2) 김계르만-「나는 고려사람이다」

과정에서 정체성 형성 과정의 부제가 있거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로 흘러가는대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및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그 요인 중 하나로서 정체성 혼란 문제를 드러낸 연구들(김현철 외, 2015; 류방란 외, 2012; 박계숙, 2009; 이희정, 2018; 전병주, 2014; 천호성 박계숙, 2012)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 맥락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낸 연구들(김민지, 2015; 김유민, 2014; 김자영, 2017; 박진우, 2015; 이민경, 2016)이 그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특징을 중심으로 해석·분석한 대표적인 국내의 연구 자료는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가 있다. 이 조사는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적인 부분을 종단적으로 조사하여 기초적인 통계데이터를 생산하려는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2015년도에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 정체성과 이중문화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다문화 학생들의 자아정체성과 이중정체성 문제에서 범위는 좀 더 축소하여 고려인 학생들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음악교육과 정체성 형성

윤지원의 2012년에 의하면 마이어(L.B.Meyer)는 음악적인 지각은 의미, 감정이 자극 그 자체 안에 있는 패턴들의 지각을 통해 일차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인간의 정서적인 행동이나 감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맨들러(G.Mandler)는 음악감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우리 신체의 자율신경 부분의 생물학적 환기(arousal)에 의해 나온다고 하였고, 베를린(D.E.Berlyne)이 주장하는 '자극에 대한 변화의 이론'에 따르면 환기(arousal), 정서(affect), 보상(reward)을 서로 연관시킨 것으로, 보상에 대한 경험을 대뇌보상 시스템의 기능적인 부분과 연관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쾌락적인 과정을 조절해주는 대뇌의 중심부 그리고 환기의 흐름을 담당하는 뇌의 중심은 림빅 시스템(Limbicsystem, 변연계)에 따라 결정되기 있기 때문에 쾌락적인 가치 경험을 주로 담당하는 부분과 음악적 자극에 의해 상기되는 정서적이 부분이 같은 영역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따라 음악적 자극이 인간 행동에 대해 동기를 유발하고 정서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고 예측할 수 있다(윤지



원, 2012). 이러한 근거를 통해 음악교육을 했을 때 정체성, 정서적 행동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음악 인류학』(The Anthropology of Music, 1964)에서 10가지 기능을 제시하였다. ① 감정표현의 기능, ② 미적인 즐거움, ③ 오락의 기능, ④ 커뮤니케이션, ⑤ 상징적 표현의 기능, ⑥ 신체적 반응 유발, ⑦ 사회적 규범의 기능, ⑧ 사회기관과 종교의식의 확인, ⑨ 사회와 문화의 연속성에 기여, ⑩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음악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이는 음악이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미묘한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고, 개인적 존재의 독특한 표현미를 가지며, 음악에로의 참여과정에는 즐거움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Merriam, 1994). 이러한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음악 즉 음악교육을 통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나아가 음악교육을 통해 사회의 통합 즉 사회의 소속감이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확립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3) 다문화적 접근으로 바라보는 음악교육

1967년에 탕글우드(Tanglewood)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문화, 사회에 관심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서양 음악만 인정하려는 시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강정은, 2018). 이를 기점으로 학교의 음악 교육 과정에 다양한 나라의 시대, 역사, 양식, 문화의 음악들을 포함하므로 음악교육의 범위를 다양한 세계 문화권으로 넓혀야 한다고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 하였다. 리타 클링거(R. Kinge) 연도는 학생들은 자국 나라의 음악을 경험하므로 그 나라의 문화, 인식, 관습, 가치 등을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적인 삶의 모습을 보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월쉬미드(W. Schmid) 연도는 음악 활동을 통해 각각의 다른 문화가 가진 역사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시거(A. Seeger) 연도는 각 나라와 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다양성과 차이성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콜론(C. J. Colon) 연도는 가창교육 중에 합창교육에 대해 다문화적인 시각에 따라 접근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가창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고, 앤더슨(W. M. Anderson) 연도는 세계의 다양한 음악 학습을 통해 다중적인 음악성(Poly Musicality)을 발달 시킬 수 있으며, 캠벨(P. S. Cambell)



연도는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음악적 요소를 신체로 가지고 즉흥적인 연주와 같은 요소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샬 맥루한(M. McLuhan)연도는 음악은 세계 다양한 나라의 공존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의 다양한 문제들이 문화 간의 이해를 돕고 세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었다.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다양한 음악가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음악적인 특징을 모티프로 살려 새로운 음악을 연구함으로써 그 나라에 숨겨진 많은 음악들을 찾아내고 기존의 다문화 교육에 음악을 연결하여 다양한 교육 연구 방법도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다.

또한 벅크스(J.Banks)연도는 다문화 교육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문화를 깊이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 스스로의 대한 이해를 신장시키고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각자가 속한 문화 집단·공동체에서의 필요한 역할을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엘리엇((D.J.Elliott)연도는 음악과 관련한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각각의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상황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소통하는 능력을 발달할 수 있다고 한다. 코다이(Z. Kodaly)연도는 모든 나라는 모국어를 가지고 있으며 음악활동 안에도 모국적 음악이 있고, 먼저는 본인 자신이 속한 모국의 음악을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강조한 동시에 유아시기에 시작하는 음악은 모든 학생에게 구조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원리로 학습내용은 주로 자국의 민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가지 예로 우리나라 고유한 민요인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정서인 ‘한’이 음악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듯이 각 나라의 역사적인 시대적 상황, 민족적인 성향과 신념 및 정서 등을 음악을 통해 알 수 있다. 각 나라의 음악에 서로 다른 관습·신념, 가치체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음악’을 매개로 한 교육은 서로 다른 나라의 음악적인 특징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음악을 관찰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고려인의 국내 이주와 접근

#### 1) 한인 디아스포라 고려인

‘고려인’은 사전적<sup>3)</sup> 의미로 19세기 중엽부터 광복 때까지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과 그 친족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현재의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이주해온 사람들과 그 친족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인이라는 의미의 러시아어인 ‘카레이츠(Корейцы)’라고도 부른다.

즉, 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광복 때까지 농업이민·항일독립운동·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등)으로 이주한 이들과 그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려인 간 동질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모는 한국인과 유사하지만 2세대 이후부터는 한국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지 못한다.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며, 러시아식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 내에서 김치 등의 한국식 음식문화와 돌잡이, 명절 등 한국식 전통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홍정민, 2022).

이처럼은 고려인들은 그들만의 언어, 생활습관 등 사회적인 형태를 형성하며 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정의는 「재외동포재단법」(2020. 11. 27. 시행)에 의하면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을 뜻

3) NAVER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18970&cid=40942&categoryId=31630>  
[네이버 지식백과] 고려인 [高麗人]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한다.<sup>4)</sup>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020. 2. 4. 시행)에서 재외동포란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를 뜻한다(홍정민, 2022).

본 연구자의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려인 동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제한 고려인 동포로 범주를 정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점차 고려인의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디아스포라(Diaspora)<sup>5)</sup>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너머'를 뜻하는 '디아(dia)'와 '씨를 뿌리다'를 뜻하는 스페로(spero)가 합성된 단어로, 이산 또는 파종을 의미한다. 본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또는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디아스포라 고려인은 타국인 한국에서 그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고려인’을 소수민족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각에 비해 최근에는 점차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적 대상으로 점차 변화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재외한인의 객관적 요건의 변화 못지않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및 관점의 변화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sup>6)</sup> 또한 그것은 고려인 문제를 단순히 현지국 내의 소수민족의 문제, 혹은 한민족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고려인의 존재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초국적 공동체의 현상 속에서 시각을 넓게 하여 바라봄을 의미한다. 그동안의 고려인 연구들이 주로 거시적, 혹은 미시적 차원의 독자적인 접근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연구한 것에 비해 이 연구는 고려인이 처하고 있는 넓은 차원의 민족정책이라는 환경 속에서 고려인의 생활세계, 언어 상황 및 디아스포라의식에 관한 미시적 분석을 병

4) 「재외동포재단법」(2020. 11. 27. 시행)

5) [네이버 지식백과] 디아스포라 [Diaspora]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6036&cid=40942&categoryId=31599>

6) <https://koanthro.jams.or.kr/co/main/jmMain.kci>



행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초국적 공동체의 한 현상으로서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고정된 어떠한 형태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위치에서 그들이 겪는 경험과 문제와 상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2) 국내 이주 고려인에 대한 해석과 접근

중국과 중앙아시아지역의 동포에 대한 차별적 지위 문제 해결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방문취업제도와 2008년 고학력자와 전문직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비자(F-4)의 도입은 고려인의 한국 이주를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박봉수, 2016; 윤인진, 김희상, 2016). 고려인 이주의 법적 발판이 마련된 2010년 이후에는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 다음으로 고려인의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는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아 비자 소지자 이외의 동반 입국자는 한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나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는 본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동반(F-3), 단기방문(C-3) 등의 비자로 동반 입국이 가능하여 가족재결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김경학, 2015).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연령별 외국인 주민 현황, 중도입국 학생 현황 등을 통해 추정치로 가늠할 수 밖에 없다(박신규, 2020). 각 부처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 중 먼저 법무부의 통계월보에서 고려인들의 체류 현황을 알 수 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 40,129명, 러시아 32,851명, 카자흐스탄 18,993명, 키르기즈스탄 3,645명, 우크라이나 3,375명 순이며 합계 98,993명에 달한다.<sup>7)</sup> 2021년 10월 31일 기준 합계 79,014명보다 19,979명 증가하였다. 이중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67,114명(67.8%),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16,511명(16.7%)으로 영주(F-5) 자격 소지자 2,066명(2.1%)에 비하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법무부, 2022).

또한 교육부에서 2012년부터 공표하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기본 통계 항목 중 다문화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23년에는 18만 명을 초과하였다(교육부, 2023). 교육부 발표를 기준으로 한 다문화학생수

7) <https://blog.naver.com/taekunjoo/223250320210> - 2022년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통계월보

추이 변화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림1] 다문화학생수 추이 변화 그래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자녀의 이주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부모가 먼저 취업을 하기 위해 방문취업이나 재외동포 자격으로 먼저 이주한 경우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자녀들이 중도에 입국한 사례이다. 둘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사례이다. 셋째, 고려인 부모 세대가 한국에 거주하는 중 출산한 자녀들로 이들은 한국 출생 자녀로 구분된다(이남주, 김민, 2017).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려인 자녀 세대는 영유아기에는 한국어 습득과 구사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생활을 거치면서 의사소통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이남주, 2019).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처럼 성장 과정 중 입국한 자녀들은 이주 후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정체성 혼란에 봉착해 있다(이남주, 2015; 이남주, 권정아, 2017; 남부현, 김지나, 2017; 김나경, 선봉규, 2018).

2023년 현재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1학년 신입생 입학식에서 한국인 보다 고려인 학생이 더 많이 입학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러시아에서 거주하다가 12세에 국내로 이주해 온 고려인 4세 배우가 넷플릭스 드라마에 출연하며 관심을 받은 경우를 볼 수 있다. 한편 갑작스러운 인구의 등장과 증가는 만

남이 준비되지 못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적응과 학업성취 부진 등 다양한 교육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고려인 아동들에게 학교 적응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다가오는 것은 언어이다. 김지나(2016)가 수행한 고려인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정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서툰 한국어로 인해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학급 교우와 함께하는 조별 활동이나 토론 수업 등 프로젝트 수업에서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교우관계나 교사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출신국가의 경험과 대비되어 정체성의 괴리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아동들의 경계경험을 면밀히 살핀 김기영(2021)은 다문화학생을 동화의 대상으로 차이를 없애가는 방식으로 대해온 한국 학교의 다문화 교육에서 겪는 상징폭력에 주목하였다. 김기영(2021)은 한국의 교육시스템과 학교문화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공교육 시스템의 보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험과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자체가 보이지 않는 배제와 타인, 혹은 스스로에 의한 고립으로 이어짐을 지적했다.

## 2. 제한 고려인 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심리학자 에릭슨은 정체성에 대해 “자신 내부에서 오랫동안 일관되게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본질적인 독특성을 계속하여 공유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정의한다. 즉 정체성은 개인과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생활양식을 통틀어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체성<sup>8)</sup>의 개념을 살펴보면 한자로는 ‘正體性’로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나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하며 영어로는 ‘Identity’라고 한다.

정체성 이론으로는 먼저 마샤의 정체성지위이론<sup>9)</sup>이 있다. 마샤(J. Marcia)는 에릭슨(E. Erikson)의 정체감 형성 이론에서 위기와 관여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두 차원의 조합을 통해 자아정체성 발달을 설명한다. 위기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역할에 대해 의문을

8) <https://namu.wiki/w/%EC%A0%95%EC%B2%B4%EC%84%B1> -나무위키 '정체성'

9) [네이버 지식백과] 마샤의 정체성지위이론 [Marcia's identity statuses theory, -正體性地位理論] (상담학 사전, 2016. 01. 15.,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제기하고 여러 대안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관여는 구체적인 계획, 가치, 신념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몰입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체성 성취, 정체성 유예, 정체성 유실, 정체성 혼미의 네 범주로 분류된다.

또한 사회 정체성 이론<sup>10)</sup>은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지각에 기반한 자기 개념의 일부’로 정의할 수 있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헨리 타즈펠과 존 터너(Tajfel & Turner, 1986)가 개발한 이론으로, 이 이론에서는 집단 간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 정체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사회 정체성 이론은 지각된 집단 간 지위의 차이, 그런 차이의 지각된 정당성과 안정성,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지각된 능력을 근거로 집단 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이론이라고 서술할 수 있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사회 정체성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범주화이다. 둘째는 동일시이다. 셋째는 비교이다.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나름의 특정한 범주를 만들어서 범주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태도나 가치관 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집단의 속성과 비교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의미하며 연구자가 다루는 고려인 아동청소년은 이러한 정체성의 모습이 혼합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재한 고려인 아동청소년들은 본국에 있을 때의 사회 공동체에서 형성된 정체성의 모습과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정체성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체성의 혼성성을 통해 본인들이 스스로 정체성의 모습을 형성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동안 고려인은 한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과 러시아인 중앙아시아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이라는 이중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역사적 조국인 한국으로 귀환했음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채 스스로를 외국에서 온 한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선봉규·파르피예브 스톨(2018)는 귀환 이주한 고려인은 동일한 혈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상이한 문화와 생활환경을 지니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외국인·이방인으로 위치 지어진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

10)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 정체성 이론 [social identity theory]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1) 재한 고려인 동포 자녀들의 초국적 삶, 혼성성

국내 고려인 동포 이주배경청소년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적응과 교사·또래 관계 그리고 학업 성취도의 문제와 진학의 문제 등 이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찾아 종합적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오 예카테리나, 2021).

첫째, 소련이 무너진 후 본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약해지면서 이주를 고민하게 되었다. 소련 시대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대다수로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그 당시에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지위가 무너지고 1991년에 소련 해체로 민족주의운동, 민족중심의 언어정책, 소수민족에게 취업과 교육기회의 제한을 두고 있는 자민족주의에 의한 차별정치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져서 본국을 떠나기 시작했다(이남주 외, 2017).

둘째, 재외동포로서 특수한 지위 및 신분을 가진다. 한국정부의 방문취업제도로 재외동포로서 가지는 비자를 비교적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고려인 동포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대부분의 경우 방문동거 비자 즉, F-1 비자로 보호자를 따라 중도입국한다. 그들의 부모 및 보호자는 해외에서 생활·거주하다가 2007년에 한국 정부의 방문취업제도를 통해 H-2(방문취업)나 F-4(재외동포) 비자를 비교적 손쉽게 발급 받으며 한국으로 많은 수가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한국어를 몰라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고려인동포들이 이렇게 입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지만 선조들이 한국인이라는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점은 타 외국인노동자와 다르다는 점이다(이남주, 2015).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보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결정하기도 한다. 1864년부터 시작된 그들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고려인들은 15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지나서도, 구소련의 소수민족의 언어정책 실시로 한국어를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한민족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은 오늘까지 유지하며 한국을 역사적 자신의 조국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려인’, ‘고려사람’, ‘까레이츠’라고 부른다(오 예카테리나, 2021).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본국에 나라에서 태어나 아동기나 청소년기까지 생활한 후 부모의 결정에 따라 대부분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과 충분한 논의 등의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의 동반자녀로 한국에 입국한다.

넷째,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공교육 진입을 힘들어한다. 고려인



동포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모국어인 사용하여 한국어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입국한다. 한국인과 외모가 똑같지만 학교에 편입할 때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문제, 문화 차이로 갈등 및 심리적 문제와 정체성의 혼란은 겪게 한다(엄명용, 2013). 한국어의 미숙은 학업에서 학교 진입 어려움과 동시에 교육과정과 및 교육방식의 차이 등이 교육문제로 나타나고 있다(오 예카테리나, 2021). 의사소통이 어려워져서 또래관계에서 어울리지 못하여 외로움과 고립감을 겪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남 외, 2017).

다섯째, 불안정한 정책으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경험하고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고려인들은 귀화하지 않은 재외동포로 구분하며 임시 체류자 자격으로 간주되고 있다(이남주 외, 2017). 재외동포이지만 외국인 체류 자격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그들의 법적 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며 변화하는 외국인 정책에 따라 그들의 상황과 체류 여건도 달라진다(오 예카테리나, 2021).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착 및 거주를 원하여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정착생활에서 오는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려인동포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해 꿈꾸고 있지만 결국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고등학교부터 더 이상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서 배제된다(오 예카테리나, 2021).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미래의 진로에 대해 질문을 하면 진로에 대한 관심도 적고 경험도 적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깊게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성인 고려인 이주자들은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를 소지하여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자리가 잡혀 체류가 안정화되면서 본국에 남아 있는 자녀를 한국으로 이주시키고 있다(KIM KYUNGHAK, 2018). 한국으로의 아동의 이주와 정착의 경우에서도 아동의 존재와 이들의 이민생활에 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KIM KYUNGHAK, 2018). 이주 아동의 이민 후의 생활을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성인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반면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착한 국가와 본국 간의 초국적인 연결을 보전하면서 가정과 학교 밖에서의 세상의 다양한 경험 및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형성하고 재조직하거나 절충하여 형성하고 있다. 고려인 아동은 가정과 학교 외에 여러가지 지역복지센터, 공원, 놀이터 등 본인 주변의 일상 속에서 여러가지 공간을

점차 적응의 단계를 통해 익숙한 장소로 변화시킨다.

대부분의 제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친구들과의 커뮤니티를 통해 ‘고려인 마을’을 형성하여 거주하기 때문에, 고려인 마을에 아동들 역시 한국에 도착 입국하자마자 현재의 거주지인 인천광역시 고려인 마을에 정착해 이주자의 삶을 시작한다. 사실 한국에 가면 모국어인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없을 것 같아 염려하던 고려인 아동들은 도착 후 빠른 시간 안에 N동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또래의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걱정했던 마음을 내려둔다. 이러한 고려인마을 아동들이 접하고 경험하게 되는 세계는 학교, 놀이터, 공원 등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과 놀이 공간 등이다. 부모 세대가 본국을 비롯해 구 소련권 국가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과 친척과의 국제 전화나 SNS를 이용한 초국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송금이나 선물을 보내고, 결혼식 등 통과의례 참여를 위해서나 여권 변경 등을 위해 본국을 방문하면서 초국적 삶을 살듯이 이주 아동 역시 초국적인 연결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KIM KYUNGHAK, 2018). 아동들은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 특히 부모·조부모와는 모국어인 러시아어로 대화하고 본국에서 지내는 남아 있는 다른 가족·친척과 전화를 하거나 소통할 때도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집에서 학교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를 제외하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할 때도 러시아어를 주요 사용하는 게임을 하고 러시아 음악을 듣고 인천의 한국인 친구들과의 소통보다는 주변의 고려인 또래들이나 본국에 살고 있는 친구나 친척과의 SNS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통하는 일을 즐겨한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아동들은 본국의 음악이나 노래 외의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노래나 춤을 좋아한다. 또한 많은 수의 고려인 아동들은 가족과 친척의 주요 통과의례에 참여를 위해 또는 여권변경 등의 일로 본국을 방문하는 부모를 따라 본국에 남아 있는 보고 싶었던 할머니 등 친척을 만나거나 사촌 형제들과 지내다 한국으로 귀국한다(KIM KYUNGHAK, 2018). 최근 들어 가까운 가족과 친척이 인천으로 국제 연쇄이주하면서 아동들이 인천시 내에서 지인이나 친인척 집을 방문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고려인마을의 아동들의 초국적 삶이 영위되는 것은 고려인마을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한국의 삶과 국경 넘어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척 구성원의 존재, 이들과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상호 정서적 지지, 의례적 맥락에서의 본국 방문 등을 통해 초국적 연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KIM KYUNGHAK, 2018). 이런 초국적 연결은 아동들이 ‘다중적 애착감과 소속감’(multiple attachments and multi-belonging)을 표현하게 되고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김경학, 2018). 아동의 ‘집’에 대한 생각에는 국제이주로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과 인천 현지와 본국의 가족과 친척 간의 초국적 연결 및 아동의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협상 등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KIM KYUNGHAK, 2018). 더 나아가 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 안팎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가족과 친척이 초국적 연결고리 속에 있는 이주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가 주는 의미 자체가 정체성이나 소속감 등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 인접하여 연관되어 있으며 한 개인과 집단 구성원의 정서적인 관계성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혼성성은 사전적 의미로 모든 문화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혼합이며, 완벽하게 하나의 뿌리로부터 비롯된 순수한 문화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자 이론<sup>11)</sup>이다.

박경환(2007)은 디아스포라의 유형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것에서 그쳤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디아스포라 주체들이 가진 사이성 혹은 이중성에 주목한다. 이는 그들이 떠났던 ‘거기’에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소속되어 있고 동시에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존재하면서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경환(2007)은 디아스포라 주체들에 대한 이해가 고정된 실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식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의 위치에 대한 사회 공간적 치환(displacement)은 집단 권력에 의해 구성된 여러 경계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한다. 디아스포라의 . 불안정한 위치성을 토대로 비-디아스포라 주체들을 낯설게 보는 것을 통해 국가가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로 재구성되는 방식을 고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민족을 통해 역사를 정당화 하는 과정과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안정 고정된 실체가 아닌 불안정하고 상황적인 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디아스포라의 이주 경험과 정체성을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 개념으로 재단할 수 없는 가운데, 이들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은 혼성성(Hybridity)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

1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95774&cid=40942&categoryId=31614> - 네이버 지식백과: 혼성성

다. 혼성성(Hybridity) 개념은 민족/국민, 종족이란 현상과 관련해서 본질주의 시각에 맞서는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박민수 2015: 24). 그 중에서 호미바바(2012)는 혼성성이 식민지 권력, 그 변환의 힘과 고착성에 포함된 생산성의 기호이며 부인을 통해 지배의 과정을 전략적으로 역전(호미바바 2012: 250)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주민, 소수민족, 혼혈인 등 혼성적인 집단들은 모국과 정주국의 지배적인 문화를 모방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양면성을 경험한다.

호미바바(2012)의 혼성성은 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이자 위치이기도 하다. 문화적 차이는 기본적으로 ‘사이에 낀 공간 (in-between)’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민족성이나 공동체적 이해, 문화적 가치라는 상호주관적이고 집단적인 경험이 교섭되는 것은 틈새들, 차이의 영역들의 중첩과 치환이 발생하는 곳인데 차이의 사회적 분절은 역사적 변화의 계기들에서 나타나는 문화 혼성성들을 인정하려는 복합적이고 진행적인 교섭(호미바바 2012: 29)이라는 것이다.

## 2)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고려인이 공유하고 있는 이주 역사와 집단 속 개인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디아스포라(Diaspora) 개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는 자신들이 정착한 국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들이 태어난 모국과의 연결은 여전히 지속함으로써 두 국가(거주국과 모국) 모두를 포함하는 ‘초국적 사회(transnational social fields)’ 내에 살게 된다. 이러한 탈 경계적인 공간에서 부딪치는 초국적 경험을 통해 그들은 현지국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모국에 대한 헌신적 태도를 동시에 중요시 여기며 살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생성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는 유목적(nomadic) 정체성이다<sup>12)</sup>. 고정된 위치에 있는 동일성이 아니라 변이,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유동화되는 새로운 장, 형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미 정체성 혹은 동일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인의 정체성 역시 주어진 것이 라기보다는 혈통과 정착사회에서의 집단적 경험의 종합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정책과 고려인 디아스포라 정체성 - 고려인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전형권·Yulia, Yim(전남대)



베르브너 (Werbner)가 정의한 ‘디아스포라 위치(place of diaspora)’의 개념은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모순적인 위치에서 오는 경험과 모국의식을 설명하기에 적실한 면이 있다.<sup>13)</sup> 즉, 이는 거주국 사회의 비주체적, 이질적, 숙명적 경험은 물론 모국으로부터도 수용과 배제라는 모순적인 경험을 동시에 겪는 한인들의 주변적 성향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처한 위치는 과거의 주류문화인 러시아문화와 현재의 주류문화가 된 토착민족문화의 경계에 위치한 주변인(marginal person)에 속해 왔다. 이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은 이산, 정착, 유리와 탈출, 방황으로 점철된 무수한 다중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경험되어 왔던 역사적·현재적 장소인 셈이다.<sup>14)</sup>

정체성은 일반적인 자아정체성과 같은 개인의 정체성의 개념과 사회적 존재 인식인 민족 정체성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민족정체성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바탕으로 같은 민족 구성원들이 가지는 공동의 자기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민족이란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언어·풍습·종교·정치·경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공유하며 결합된 인간 공동체를 가리킨다. 한 민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그 민족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지니게 되고, 이로 인해 같은 민족 구성원들은 민족에 대한 공동의 자기의식을 지니게 된다. 민족 정체성은 개인이 특정 민족 집단에 속한다고 느낌으로써, 그 민족에 대한 소속감과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한다.<sup>15)</sup> 민족 정체성에 대한 해석은 원초주의, 도구주의, 구성주의 등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은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객관적 특성은 종족·혈통이나 문화 즉, 언어, 종교, 생활형태와 같은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관적 특성은 개개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소속의식으로 나타난다. 객관적 특성에 있어서 언어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언어공동체는 정서와 사고체계 전반에 영향 미치는 정서적 공동체이며 역사공동체이기 때문이다.<sup>16)</sup> 또한, 민족어를 통해 한민족

13) 베르브너는 이러한 유동적인 가능성이 디아스포라적 위치에서 온다고 보는데 디아스포라의 위치는 전형적인 모순적 위치로서 무장소의 장소, 이질성과 동질성, 많은 전통들의 혼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Werbner, Pnina, “The Place which is diaspora: citizenship, religion and gender in the making of chaordic transnationalism”,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28, No.1,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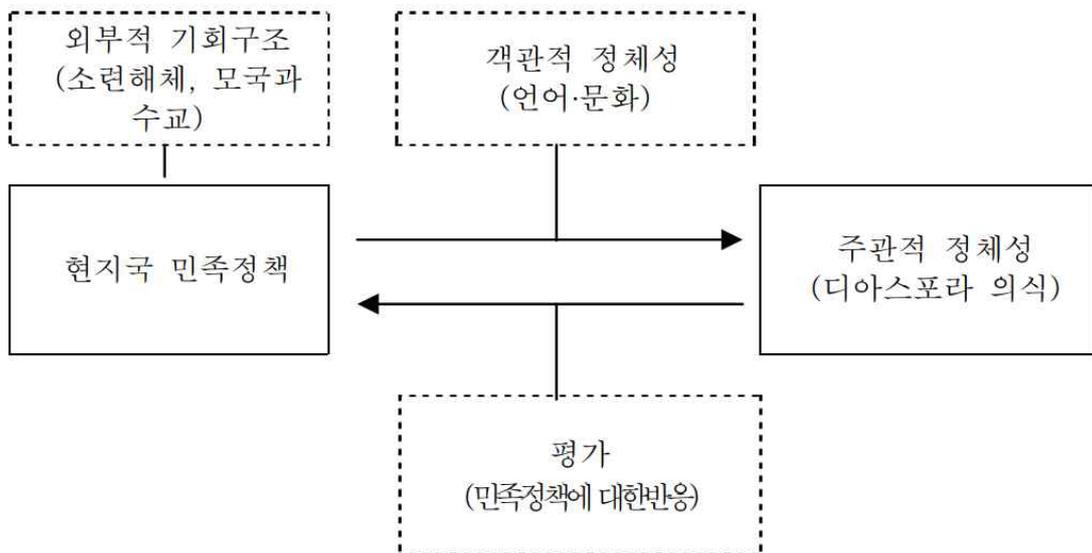
14)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정책과 고려인 디아스포라 정체성 - 고려인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전형권·Yulia, Yim(전남대)

15) [네이버 지식백과] 민족 정체성 [民族正體性]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51694&cid=40942&categoryId=31642>

집단의 문화적 가치와 민족주체성이 세대에 걸쳐 전승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민족어를 어느 정도 잘 하느냐는 민족문화와 정체성이 세대 간에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sup>17)</sup>

정체성의 주관적 측면은 ‘디아스포라 의식’의 핵심으로서, 심리적 동일성 (자신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자긍심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느끼는 정도), 지속성 (한민족 문화를 보존 계승하려는 노력의 정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체성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이 존재할 때 종족적 소속의식도 생겨나기 마련이며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의 의식적, 주관적 요소가 강한 정도만큼 객관적 동질성도 더욱 효율적으로 보전되고 유지되는 법이다.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주관적 정체성이 집단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현지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와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현지국의 소수민족정책 또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2] 고려인 정체성의 분석틀<sup>18)</sup>

16) 임채완, “중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정체성과 민족의식”, 『중아시아 한인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연구총서, 1999, p.3.

17) 임채완, “중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정체성과 민족의식”, 『중아시아 한인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연구총서, 1999, p.9.

18)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정책과 고려인 디아스포라 정체성 - 고려인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전형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의식을 민족정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소수 민족정책의 산물로써 탄생된 우즈베키스탄의 법·제도적인 틀 속에서 객관적 정체성과 주관적 정체성이 고려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며 나아가 고려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려인 정체성에 있어서의 객관적 조건인 언어와 문화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주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고려인의 ‘디아스포라 의식’ 즉, 한민족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 애착심 등을 파악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현장과 한국 생활 정착을 하는데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음악교육과 정체성

음악교육과 정체성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려면 음악교육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정서적인 측면 발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음악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 요소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기 자신과 여러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자아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은 비언어적 소통의 도구로서 학습자가 표현매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감정과 생각을 음악적인 요소로 형상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자기 내부의 잠재적인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음악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나’의 존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음악교육의 의미나 요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악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데 음악교육의 역사는 서양음악사와 국악사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서양음악사에서 고대시대를 예로 들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음악의 주된 기능은 개인에게 인격·기품·힘을 심어 주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목적에 내재된 것은 심성·육체·영혼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초기의 개념이었다(김현, 2010). 고대 그리스의 교육 기구는 심성의 발달을 위해, 수사와 웅변 및 건강한 육체의 개발을 위해,

---

권·Yulia, Yim(전남대), p.359

체육·정신 발달을 위해 예술과 음악으로 구성되어졌다.<sup>19)</sup>

또한 국악사에서는 고대 음악에 관해서는 기록에 의존하기보다는 제례를 위한 음악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삼국 시대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과 중국, 일본의 문헌을 통해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에 금·가·무 일체 형태의 음악이 존재하였고 중국·일본 등과 음악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음악 행정 및 교육을 담당하는 장악 기관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서양의 고대사회에서부터, 국악사에서는 상고시대부터 음악활동 및 음악교육의 형태가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결국 음악활동이나 음악교육활동이 사람의 생활전반적인 부분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사람에게 많은 정서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술교육, 특히 음악교육이 정서적인 측면에 기여하는 정도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론과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교육은 생동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일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한 민족의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삶’ 그 자체이며 인간성의 발로로서 인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음악교육은 창작, 감상, 연주, 가창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원만한 음악적 활동을 조장하며, 정서적이고 심미적인 인간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sup>21)</sup> 즉 교육은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필요한 능력들을 폭넓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인적 인간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교육도 단지 감정적 능력의 한 부분의 훈련이 아니라 보다 깊은 인간성 발전을 위한 기본 능력을 함양하도록 작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의 교육이, 인간이 저마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 가능성을 최대한 확대, 개발함으로써 전인으로서의 자기완성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면, 심미적인 예술 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진실된 자기 인식을 가지게 하고, 의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의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떤 가능성의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학교 교육의 임무인 것이다(김현, 2010). 그래서 예술 교육은 신체적 발달, 지적 발달, 도덕적 발달에 도움이 주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에서 그치는

19) Abeles, Hoffer, Klotman, 방금주 역, 「음악교육의 기초」(삼호출판사, 1991), p. 11.

20) 장호, 「중등학교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예술, 2006), p. 21.

21)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세광음악 출판사, 1990), p. 25



것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심미 그 본질 자체의 가치가 주는 의미가 지니는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역할과 기능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이고 긴요한,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김지현, 2016).<sup>22)</sup> 인간성을 발전시키고 회복 하기 위해서 정서적인·정의적인 면의 발달에 크게 공헌한다고 볼 수 있는 음악이야말로 인간화, 인간성 회복, 전인적 인간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교육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일반 학교의 음악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악의 여러 활동들을 통하여 심미적인 경험을 통해 심미적 가능성을 최대한 넓히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음악적 감수성, 즉, 음악 지각력과 반응력을 가능한 한 높은 단계로 계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음악 예술은 인간의 삶에 이로운 것이고,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며, 삶의 경험을 강렬하게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공유하여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은 오랜 역사를 통해 대부분의 철학자들과 교육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뿐만 아니라, 음악은 도덕적인 인간, 사회적인 인간, 건강한 인간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까지 믿어져 왔다.<sup>23)</sup>

페스탈로찌(John Heinrich Pestalozzi, 1746-1827)의 교육은 ‘사회 개혁의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개조(인격도야)’를 도모하고 개조된 인간을 통하여 ‘사회 개혁’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현, 2010). 브라멜드(Theodore Brameld, 1904-1983)의 교육은 ‘사회적 자아실현’이라고 정의한다.<sup>24)</sup> 즉 사회는 교육을 통하여 개혁함으로써 사회를 구원함을 의미한다.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교육을 ‘사회적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머셀(Mursell)은 ‘음악은 본래 인간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보다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김현, 2010).

마이어(L.B.Meyer)는 음악지각은 의미와 감정이 자극 그 자체 속에 있는 패턴들의 지각을 통해 일어난다고 보고, 인간의 정서적인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윤지원, 2012). 맨들러(G.Mandler)는 음악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자율신경 시스템의 생물학적 환기(arousal)에 따라 나온다고 하였고, 베를린(D.E.Berlyne)의 '자극에 대한 변

22)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세광음악 출판사, 1990), p.101~102.

23)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세광음악 출판사, 1990), p.112.

24) 이원필, 「교육학 신장 上」(동진문화사, 1992), p.19



화의 이론'은 환기(arousal), 정서(affect), 보상(reward)을 연결시킨 것으로, 보상의 경험을 대뇌보상 시스템의 기능과 연결한다고 하였다(윤지원, 2011). 『음악 인류학』(TheAnthropologyofMusic,1964)에서 10가지 기능을 제시하였다. ①감정표현의 기능, ②미적인 즐거움, ③오락의 기능, ④커뮤니케이션, ⑤상징적 표현의 기능, ⑥신체적 반응 유발, ⑦사회적 규범의 기능, ⑧사회기관과 종교의식의 확인, ⑨사회와 문화의 연속성에 기여, ⑩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음악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이는 음악이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미묘한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고, 개인적 존재의 독특한 표현미를 가지며, 음악에로의 참여과정에는 즐거움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Merriam,1994).

또한 학생의 때 즉, 청소년기에 정서적 즉 전인적인 부분의 발달을‘긍정적 청소년 발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학업 및 사회적 역량, 자신감, 관계성, 인성과 이타심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긍정적 청소년 발달과제로 언급된 역량들은 예능적인 부분인 스포츠 참가나 여가활동의 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긍정적 결과와도 밀접하다. 이미 기존 선행연구물들을 통해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의 청소년 발달에 대한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져 오고 있다(Caldwell & Smith, 2006). 신규리, 박수정(2014)에 따르면 연구에서 수행된 여가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초등학교생들의 학교생활적응력과 여가인지력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해석하면 적응력과 같은 정서적, 정의적 요인을 발달하기 위해 음악, 미술, 체육 등과 같은 예술체육분야를 접목할 수 있으며 접목했을 때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체험중심 통합영역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사회성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최근 학술지자료에서 질적자료를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체험중심 통합영역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자아정체성 개선에 많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중심 통합영역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입증하였다.<sup>25)</sup>

25) 체험중심 통합영역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사회성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김민규·박수정·김용석·김봉주(인하대학교)·서정은(이화여자대학교)-교육문화연구 제18-2호(2012년), pp. 123~141

#### 4. 소결

앞서 살펴본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고려인인 19세기 중엽부터 광복 때까지 러시아·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그 친족을 정의하는 말로 정리 할 수 있다. 또한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현재의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이주해온 사람들과 그 친족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인이라는 의미의 러시아어인 ‘카레이츠(Копейцы)’라고도 부른다.<sup>26)</sup> 이러하며 재한 고려인 아동들의 특성은 혼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대표적인 정체성은 마샤의 정체성 이론을 들 수 있다. 고려인 아동들 정체성의 경우는 혼성적인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려인 자녀들의 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이중적인 요소로 언어방식과 생활습관등이 있다. 이는 학교와 같은 공식적인 장소나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가정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문화나 공유가 다르기 때문에서 여기서 오는 이질감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연구자는 언어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음악은 비언어적 소통의 도구로서 학습자가 표현매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감정과 생각을 음악적인 요소로 형상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예술 교육은 신체적 발달이나, 지적 발달, 도덕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심미 그 자체의 가치와 의미, 이것만이 지니는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절실하고 긴요한,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정서적인 면의 개발에 크게 공헌한다고 볼 수 있는 음악이야말로 인간화, 인간성 회복, 전인적 인간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교육 분야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음악활동은 재한 고려인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고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2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18970&cid=40942&categoryId=31630> - 네이버 지식백과: 고려인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문헌연구와 FGI를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초 자료가 되는 인천 N지역의 특성과 인근 학교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외동포 아동의 우리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은 민족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주제중심수업을 중심으로 하여 제재곡을 통한 가창, 감상의 활동을 학습지도안을 통해 제시하고 감상평을 가지고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을 학습지도안을 통해 제시하며 결과를 도출하였다.

#### 1. 연구방법론

##### 1) 문헌조사

연구자 (연도)	연구 내용 및 시사점
조경진(2015)	<p>충청 지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으로 한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교적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낮은 결과로 나타남.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 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또래 청소년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며 나아가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 도움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함.</p> <p>→학교에서의 음악 프로그램으로 국한한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했다는 것에 의의를 둬. 결과적으로 음악 프로그램이 정서적 안정감과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를 도출함.</p>
전지연	국악교육을 경험한 새터민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 집단



<p>(2015)</p>	<p>간의 남한 문화적응을 비교해 보면 국악교육을 경험한 실험집단이 하위영역인 민족 소속감, 자문화 관심, 타문화 관심, 한국문화 자긍심, 한국인 동일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악교육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 집단 간의 국가정체성을 비교해 보면 국악교육을 경험한 실험집단이 하위영역인 자부심, 기여의식, 존중감, 국적, 호혜협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p> <p><b>→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새터민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다문화교육과 국악교육을 접목하여 진행한 것에 대해 의의를 둬. 새터민 학생들에게 한국의 국악을 매개로 하여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임.</b></p>
<p>최윤영 (2021)</p>	<p>본 연구는 자기존중감의 하위요소(가치감, 유능감, 소속감)를 활동을 통해 경험하여 자기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인 중재 절차와 유형으로 구성된 가창 프로그램을 제시함. 또한 자기존중감 향상을 위한 가창 활동과 음악 논거가 타당화된 가창 프로그램을 제시함.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의 난이도와 음악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현장적용 가능성을 높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함.</p> <p><b>→가창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여 자기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 연구임. 여러 가지 음악활동 중에 가창활동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으며 음악 가창의 특징을 잘 살려서 개발된 프로그램임.</b></p>
<p>윤영미, 박혜영 (2020)</p>	<p>논문에서 일반적 특성에서 연구 설계는 비무선 배치 실험연구와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실험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3세 이하 아동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음. 또한, 음악 중재 특성에서 목표는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 자기 관련 요인이 많았고, 중재활동은 노래, 악기, 창작을 혼합한 그룹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됨.</p> <p><b>→ 논문에서 정서적인 측면인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 ‘자아’에 관한 정의가 많이 등장.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생</b></p>



	<p>각하고 확립해나갈지에 대한 결과를 음악 활동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p>
<p>백승영 (2021)</p>	<p>음악치료 중재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며 연구의 특성 중 조절변인으로 중재 기간, 중재 횟수, 중재 시간을 갖고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메타회귀분석을 시행함. 연구의 포함된 연구들의 출간 편의를 알아보기 위해 출간 편의 분석을 시행함.</p> <p>➔음악치료의 시각에서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으로 치료적인 목적에서 접근함. 사회성은 즉 적응력과 관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본 연구자가 접근하려는 시각과 부합하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음.</p>
<p>김지인 (2017)</p>	<p>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특징은 아동의 성장 과정 중 양육자인 부모의 양육의 결핍과 한국 또래 집단 내의 위축감으로 인한 다른 사람 즉, 타인과의 관계 맺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있음.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법과 상담의 경험이 없는 점을 생각하여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소하고, 상호관계에 따른 공감과 지지를 경험하도록 구성함.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은 중심이 되는 예술 매체에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이해, 심경 등을 투사하여 자기표현을 함으로써 긍정적 자기를 발견하므로 자신감이 향상 및 발전되면서 자기를 비하 및 과소평가 하는 표현이 줄어들었음.</p> <p>➔다문화 중도입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치료라는 분야로 접근하는 논문으로 예술은 음악을 포함하여 미술, 체육, 연극 등을 포함하고 이를 통한 치료를 도출하는 것. 예술치료는 학생들이 본인의 생각과 느낌, 사고 등을 표현하고 해소하므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중요함. 이를 통해 예술이 학생들의 표현의 매개가 될 수 있고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를 발견함을 알 수 있음.</p>

전예지  
(2021)

본 연구는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할 여유가 부족하며 자신에 대해 성찰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노출된 현대 청소년들을 위한 정체성 탐구 수업이랑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에게 시작됨. 그에 따라 동시대 다양한 형태로 두드러진 멀티페르소나 형상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정체성 탐구를 위한 다문화미술교육 지도방안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주로 기본의 다문화미술교육 연구에서 다루어진 국가차원의 정체성 차이의 공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닌 다원적인 문화적 배경에 기초한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함. 또한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는 사회에서 혼성적인 소속감을 가졌으며 아직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중인 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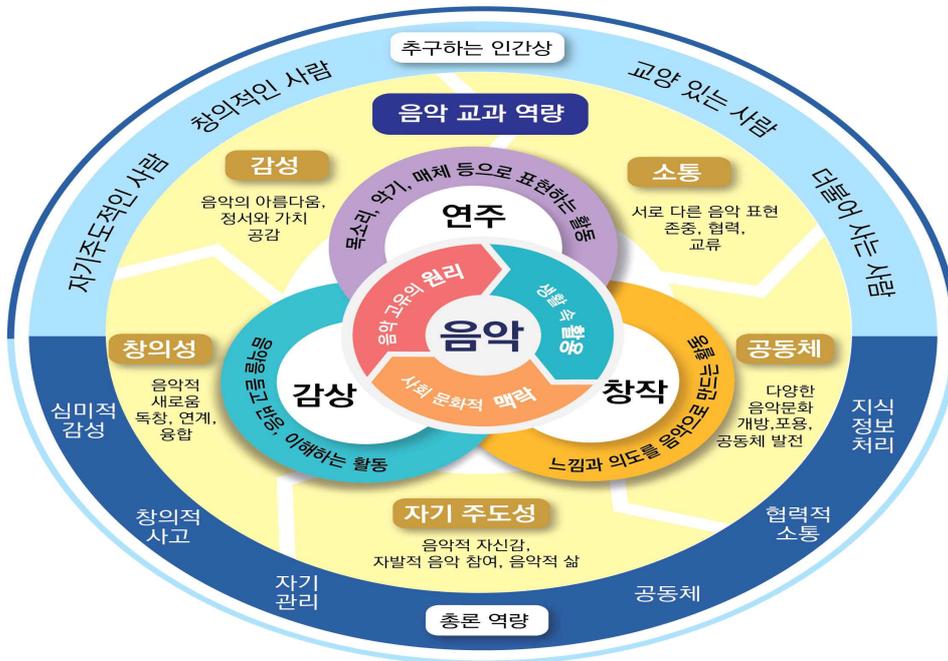
➔미술교육이기 때문에 음악교육과는 거리가 있지만 예술교육의 한 범주에서 참고함. 다문화 학생들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문제를 미술을 통해 표현하므로 혼성적인 소속감을 가졌다는 결과를 도출함. 비교적 최근의 논문들은 학생들의 정서적, 정의적 영역에 대한 접근을 많이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국내학술지 및 논문 연구동향을 파악했을 때 고려인 재외 동포 초등학생으로 대상의 범위를 좁게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연구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다문화청소년의 음악교육, 예술인지능력, 예술교육, 자아존중감과 음악 등으로 범위를 넓혀서 탐색하여 본 연구자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들을 추려보니 대략 30편 정도로 정리가 되었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 참고할만한 연구물들을 정리하였다.

### (1)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수업이 진행중이지만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업 지도안을 계획하였다. 2022에서 말하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 나.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그림3] 음악 교과 교육과정의 설계 개요

이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방향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은 총론의 인간상 및 핵심 역량과 연계지어 ‘감성 역량, 창의성 역량, 자기주도성 역량, 공동체 역량, 소통 역량’을 음악 교과 역량으로 설정하고, 영역 및 내용 체계를 고지함으로써 핵심 아이디어 기반 역량 함양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였다. 음악 교과 역량은 총론의 핵심 역량 중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등 각 역량을 음악 교과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며, 요즘

대두되고 있는 총론의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음악 교과의 영역 및 내용 체계 전반에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음악과 성격에서는 음악을 통해 개인의 음악적인 발달과 심리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인적 성장 즉, 정의적 영역까지의 발달을 이끌고 인간은 자신 주변의 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협력적 음악 경험을 통해 자존감·협동심·소속감 등의 인성을 도야하고, 지역·세대·계층 간 음악적 교류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등 올바른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음악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음악 문화는 한 공동체나 사회의 인간·문화·사회를 직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미적 안목을 발달 및 발전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고유한 문화의 계승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음악교육이 주는 영향을 인지·정의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음악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와 영향력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고전적·현대적·예술 심미적·실제적 의미와 가치를 모두 포용하는 우리 음악 문화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이름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음악에 대한 관점과 안목을 넓혀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 문화 발전을 안내한다. 이에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음악 문화 즉, 국악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를 통해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교육부, 2022).

## (2) 다문화교육이론

다문화교육이론에는 먼저 뱅크스(Banks)의 문화정체성 발달이론을 제시 할 수 있다.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이란, 자신이 속한 문화적 집단과의 연관성 안에서 파악되는 개인의 주관적 자아개념(Banks, 2006 재인용)으로, 다양한 문화집단들과 부딪히면서 발달하며, 총 6단계가 정리 할 수 있다. 첫 번째, 문화적 사대주의를 보이는 문화적, 심리적 속박(Cultural Psychological Captivity)단계는,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타문화집단과 접촉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이울경, 2017). 두 번째, 자민족 중심주의에 속하는 문화적 정박(Cultural Encapsulation)단계는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문화공동체에만 적극적인 태도를 하려는 특징을 나타나는 것으로, 사회의 중심에 위치한 집단 구성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각각 문화적 상대주의를 보이는 문화적 정체성 명료화(Cultural Identity Clarification)단계와 이중 문화주의(Biculturalism)이다(이울경, 2017). 문화적 정체성 명료화 단계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며, 동시에 타문화 집단에 대해서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중 문화주의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 공동체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강한 의욕을 보인다(이울경, 2017). 다섯 번째의 다문화 주의 및 반성적 국가주의(Multiculturalism and Reflective Nationalism)에 속한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념을 기준으로 국가적인 이념과 가치를 반성적인 태도로 생각하며, 국가 내의 다양한 다른 하위문화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공유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세계주의 및 세계적 유능성(Globalism and Global Competency)단계에서는 개인이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국가의 하위문화뿐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을 긍정적이며 반성적으로 이해한다(이울경, 2017).

다음으로 베넷(Bennett)의 간문화적 감수성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 간문화적 감수성 이론은 개인이 다양한 문화가 공생하는 사회에서 지내면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를 분석하였다. 문화 간 차이에 대한 경험이 정교·세분화 될수록 개인의 문화적 역량은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차이에 대한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은 자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에서 민족상대주의(Ethno-Relativism)로 발전해나가며, 자민족 중심주의 그리고 민족상대주의는 각각 부정(Denial), 방어(Defense), 경시(Minimization), 그리고 수용(Acceptance), 적응(Adaptation), 통합(Integration)의 3단계로 다시 나뉘어진다고(이울경, 2017). 자민족 중심주의에서는 대체로 개개인이 문화 사이의 차이를 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느끼고 지키려고 한다. 민족상대주의를 가진 사람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통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박주희, 정진경, 2008; 배재정, 2010 재인용).

### (3)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이론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이론은 크게 2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는 뱅크스(Banks)의 다문화교육과정 개혁 접근법이다. 뱅크스(1993)는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을 통합하기 위해 다문화교육과정 개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이울경,



2017). 이는 다문화교육과정 발전에 있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 다문화교육을 단순히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성이 팽배해지는 세계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교육변혁 운동으로 보았으며, ‘기여적 접근·부가적 접근·변환적 접근·사회행동 접근’의 3단계로 이루어져있다. 둘째는 베넷(Bennett)의 다문화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체적인 모형이다. 이 모형은 다문화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구체적으로 제기하며, 핵심적인 가치를 인간 고유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존중,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 세계 사회에 대한 책임감, 지구보존에 두고 있다(이울경, 2017). 그리고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체계를 학생들의 가치 태도, 실행능력 안에서 나타내며 지키기 위하여 학교교육을 의도적으로 도모하게 한다.

모형의 교육 목표는 6단계로 나타내고 있는데, 1단계의‘다문화적 역사관점 개발하기’, 2단계의‘문화적 인식 강화하기’, 3단계의‘문화 간 이해능력 강화하기’, 4단계의‘인종, 성별 등의 편견과 차별에 대항하기’, 5단계의‘지구 상황과 세계적 역학 관계인식하기’, 6단계의 ‘사회적 행동기술 향상시키기’로 진행된다(이울경, 2017). 1단계‘다문화적 역사관점 개발하기’란, 역사적인 여러 사건을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관점 모두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을 말하며, 2단계‘문화적 인식 강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인식 수준이 다수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집단에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3단계‘문화 간 이해능력 강화’는 자신과 문화적인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은, 생각과 행동을 서로 다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상대방의 언어적 표현, 신호, 암시적인 행동 몸짓 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단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공감하며 소통하는 능력이다. 4단계‘인종, 성별 등의 편견과 차별에 대항하기’란 자신과 다른 인종, 성별, 문화가 열등하다는 편견, 오해, 미신 등을 버리고, 인간의 보편적 유사성에 집중하며, 반인종차별주의자, 반성별차별주의자로 바꾸려는 것이다(이울경 2017). 5단계‘지구 상황과 세계적 역학 관계 인식’은 세계적인 상황이나 흐름, 발전에 대한 지식과 생각을 구성하며 이해하는 것을 말하며, 6단계‘사회적 행동 기술 향상’은 인간 복지와 미래,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과 태도, 행동과 세계적인 책무성을 갖는 것이다. 6개의 목표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 다른

목표를 제외하고 한 가지의 목표만을 충분히 도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6개의 목표를 같은 입장에서 강조하여 가르칠 필요는 없고, 학교·학년·교과내용에 따라 가장 적당한 목표를 강조해서 가르치면 된다. 예를 들면, 개인에 대한 정체감이나 안정감 없이 공감과 같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우기는 사실 불가능하며, 타문화에 대한 이해, 기능, 태도의 발전없이 문화적 의식을 높이는 것은 더 큰 민족중심주의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이율경, 2017). 그러나 학교, 학년, 교과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하여,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 역사적 관점과 문화적 인식을 문화나 미술과목을 통해 강조할 수 있고, 다른 학교에서는 문화 간 이해능력을 위해 언어와 의사소통 영역을 강조하여 가르칠 수 있다(장인실 외, 2014).

뱅크스와 베넷은 다문화교육에서 편견 감소, 반인종주의를 실행케 하기 위하여 올포트(Allport, 1958)의 ‘편견의 본성’, ‘사회적 접촉 이론’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뱅크스의 모형은 총체적으로 하나의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뛰어넘어 학교체제 전반적인 상황에 걸친 근본적인 변혁을 통한 다문화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4) 주제중심 통합교육이론

주제중심 통합학습은 태도와 적성의 발달이라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 및 능력, 실생활 내에서의 문제와 보다 융통성 있게 연계된다는 특징을 가진다(강충열 외, 2010).

박주만(2011)은 주제중심의 통합학습이란 하나의 문제나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 간 내용을 연계하여 통합학습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행되는 학습이라고 하였다. 또한 주제중심 통합학습은 정해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 경험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과에서의 요구하는 것과 학생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반영하여 선정, 조직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스스로 주도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통한 학습을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학습 동기향상을 계획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강충열(2008)은 통합적 방식이 학습자의 필요와 흥미를 적극 고려하여 학습자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통합의 목적이 학습자 자신의 생활과 지식의 관련성을 추구하는 점이란 사실을 전제한다면, 학습자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문제, 개념을 보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탐구하려는 의도가 반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합적 방식은 교과이해를 돕고자 교과

를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계시켜 학습효과를 높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초등 교육과정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교과를 다룸에 있어 흥미는 아동이 관심 있어 하는 해결문제 또는 탐구과제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흥미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과업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내용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학습기회가 되기 때문에 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안내가 필요하다(강충열, 2008).

음악교육에서의 주제중심 통합학습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활동과 관련 교과가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 서로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각각 교과 고유의 특징을 바탕으로 학습내용과 방법이 나타나도록 하는 학문적 통합 활동을 말한다. 주제중심의 통합적 음악수업에서 타 교과 영역과 음악활동을 연결해 주는 공통분모는 '주제'이며 음악학습이 중심이 되는 통합 주제학습에서는 여러 교과의 공통주제가 통합될 수 있다(박주만, 2011).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자는 정체성 형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아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민족간의 통합교육을 프로그램화 하여 제시한다.

## 2) 전문가집단인터뷰(FGI)

FGI의 방법은 '표적집단면접법'이라고도 하며 focus group interview의 약자로 FGI로 표기한다. FGI는 초점집단면접법이라고도 한다. 표적시장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를 일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6~12명 정도 선발하여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면접자의 진행 아래 조사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마케팅조사 기법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정량적(quantitative) 조사방법과는 달리 토론을 통하여 소비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정성적(qualitative) 조사 방법이며, 정량적 조사에 앞서 탐색조사로 이용된다.<sup>27)</sup>

이러한 FGE의 기본적인 순서는 계획단계, 참여자 모집 단계, 진행 단계, 분석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계획 단계는 해당 연구를 위해 계획하는 단계로 면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리하여 제시하는 단계이다. 참여자 모집 단계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참여자를 모집하는 단계이다. 진행 단계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단계적으

27) [네이버 지식백과] 표적집단면접법 [focus group interview, 標的集團面接法] (두산백과와 두피디아, 두산백과)



로 진행을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분석 단계는 타당도 및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연구의 프로그램이나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김후자·김정남, 2001).

본 연구에서는 FGI의 기본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해당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문화교육 전문가, 음악교육 전문가, 초등교육 전문가 4명을 모집하여 연구자가 제시하는 1차 음악교육 지도안을 보고 피드백을 주고 받았다. 의견을 받을 때는 모두 이메일이나 문자 등의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를 근거로 1차 지도안을 수정·보완하여 2차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연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식이 아닌 연구자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까지 진행하며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결론을 도출한다. 이에 따라 IRB 승인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 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학생들에 대한 IRB 신청의 단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 3) 전문가협의

<표2>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배경

전문가	경력, 근무 년수	전문분야, 소지 학위 및 자격증
A	23년	다문화, 이주민,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교육전공, 교육학박사
B	17년	음악교육전공(피아노), 다문화교육 교육학박사 음악치료사자격증소지
C	20년	초등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 현재 한국어학급 컨설팅위원
D	19년	초등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 현재 한국어학급 컨설팅위원

섭외한 4명의 전문가에게 연구의 목적, 기간, 방법을 포함한 설명문을 제공한 뒤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설명문에는 이메일 또는 문자, 전화로 긍정적인 회신을 준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방법을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4명 모두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FGI는 서면 FGI 1회, 이메일 비대면 FGI 2회로 총 3

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중도 포기 없이 3회에 걸친 FGI에 모두 참여하였다. 서면 FGI를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1)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2) 수업 내용 3) 교수학습방법 4) 교육자료 로 구성하여 LIKERT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고 수업지도안의 장점과 학교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과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열린 문항을 따로 구성하였다. 서면 질문지는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였고 전문가들에게 약 2주간의 응답 기간을 제공하였다. 서면 FGI 응답 결과를 수합 후 응답을 분류하고 이들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메일 비대면 FGI를 진행하였다. 1차 이메일 비대면 FGI에서는 전반적인 논문의 방향과 지도안에 대략적인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설명하고 질문을 주고받았다.

2차 이메일 비대면 FGI는 1차 FGI를 토대로 설계한 ‘주제중심 학습’을 중심으로 한 음악교육 지도안의 개요를 제시한 뒤 모델의 구성 방법 및 요소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합하였다. 전문가들은 각 전문분야에 맞게 피드백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초등교육에서 다문화교육과 음악교육을 접목했을 때에 학생들의 정서적, 정의적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FGI의 목적은 전문가들 간의 합의가 아닌 다양한 의견의 수합이므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연구자가 별도로 내용을 요약하거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지양하였다.

## 2. 연구 배경 지역-인천 N동 고려인 밀집 거주지역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은 거주국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등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초국가적 이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주(김경학, 2014)를 하게 되는데, 국내로 귀환이주한 고려인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려인들은 국내로 이주하여 우리나라 각지에서 집거지를 형성하여 삶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안산, 부산, 동해, 광주, 인천 등이 대표적인 고려인 밀집 지역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경우가 많아 이들은 주로 근처에 공단이 위치해 있고, 방값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여 거주한다. 실제로 김재기(2014)의 연구에서 국내로 이주한 고려인은 경제적 이유로 한국으

로 이주를 선택하였으며, 저렴한 거주 비용이 거주지 선택 시 주된 고려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해서 국내 일부 지역에 고려인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인천 함박마을 고려인 마을과 광주광역시 월곡동 고려인 마을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1) N동 고려인 주변지역 형성과 거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N동에는 고려인들이 모여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이 있다. 다수의 고려인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상권 시설이 모여 있는 이 지역은 본 연구에서 조망하고 있는 고려인 이주배경 아동들의 일상생활이 전개되는 바탕이다. 과거 인천 지역이 공단화 되던 시기 외지 노동인력을 받아들였던 지역이 다문화 거리로 재조명 및 발전되자 고려인들은 인근의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고려인 밀집 거주지역을 형성 김승력(2017: 26) 하였는데 그 중에 고려인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은 함박마을이고 그 다음으로 밀집 거주하는 국내로 이주하는 고려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N동에 이주민들이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생활을 유지함에 따라 N동의 고려인 밀집 거주지역 또한 꾸준히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N동은 함박마을에 비해 크게 상권이 존재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공단과 거리가 가까워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N동 지역으로 자리를 잡는 것으로 보인다.

N동 고려인 마을에 가면 러시아어로 쓰여있는 간판이 있는 상점들과 마트가 있고 러시아를 제외하고 베트남어 간판도 종종 보인다. 마을 가운데에 위치한 놀이터가 아동들이 방과후나 주말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고 편의점 또한 아이들이 몰려 있는 장소이다.

N동이 다른 이주민 밀집 거주지역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점은 동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며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대체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주민들은 근무하는 공단 지역 간 용이한 교통에 따라 N동으로 이주해 온다. 먼저 이주해온 친척이나 지인이 공단의 일자리를 추천해주거나 주거환경을 알아봐주고 나중에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모두 이동하는 경로로 이주해오고 있다. 이는 관련 시설의 증가로 이어져 다시 이주민 밀집 거주지역이 확대되는 연결을 가지고 있다. 이주민 밀집 거주지역은 특정 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골목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비교적 저렴한 거주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그 결과 친구, 친척들 끼리 맞은편 건물에 살거나 도보 10분 내에 자신이 필요한 러시아·중앙아시아 음식과 물건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실제로 A 초등학교의 재학중인 고려인 학생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N동 고려인 마을에서 식당이나 빵집을 운영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공장 단지뿐만 수입원을 생각했던 것에서 최근들어 점차 가게 상업을 운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그런데 동네 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고려인 아동이 증가한것에 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집에서 거리가 멀리 있는 곳에 보내거나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는 학생들이 입학생의 절반 정도의 비율을 보이며 경험을 했던 학생들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보육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나 학교생활에 대해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동네의 특이한 점은 동네 친척들과 지인들이 서로의 아이들을 보육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방과후나 주말의 시간을 보낸다는 점이다. 큰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큰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의 수는 부족해도 그 동네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지내며 보육을 돕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듯 동네의 복지시설등이 가까이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공교육의 역할이 크게 자리하고 있고 학교생활이 학생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2) 이주배경 아동의 증가: A초등학교와 교육환경

N동에 고려인 이주민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가족 단위로 이주해 오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이주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 배경은 자녀를 둔 고려인들 사이에서 N동이 어린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 곳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이다. N동의 A 초등학교는 인근지역 일대에 유일하게 러시아어 다문화 언어강사, 한국어 강사를 지원하고 다문화 학급(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A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약 16%를 차지한다. 약 60% 아동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온 학생이다. A 초등학교는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9월 기준 전체 다문화 학생 110명 중 50명을 고려인 학생으로 파악



고 있다.

<표1> A 초등학교 학생 수 (단위:명, 2023년 3월 기준)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5	5	6	6	6	5	33
남	51	56	57	60	71	60	355
여	47	51	54	64	56	49	321
다문화	<b>16</b>	<b>15</b>	<b>18</b>	<b>19</b>	<b>20</b>	<b>10</b>	<b>98</b>
비율	<b>16.3</b>	<b>14.0</b>	<b>16.2</b>	<b>15.3</b>	<b>15.7</b>	<b>9.1</b>	<b>14.4</b>

A 초등학교는 이러한 초등학교 인구 구성에 맞추어 아동들의 적응과 교육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7년 다문화 예비학교 학급지정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 지정 한국어 학급을 3학급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다문화 언어 강사와 한국어 강사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 다문화 언어강사는 러시아어권 다문화 학생의 교과수업 및 한국어 수업을 돕고 학습 관련 자료 및 가정 통신문을 번역하며 다문화 학부모 학생 상담 통역과 활동 지원, 러시아 모국어와 기초회화수업 및 문화이해수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한국어 학급은 각 반에 속한 이주배경 아동들이 시간을 정해 잠시 한국어반에서 수업을 듣고 다시 원래 소속 학급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원적을 두는 학급은 있고 하루에 최소 1교시, 최대 3교시의 수업을 한국어 교실에서 학습한다. 한국어학급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급이다. 이는 러시아어권 이주배경 아동들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학습 하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언어에서 발생하는 학업 성취 미달의 문제가 중학교까지 이어지기에 초등학교에서 학업에 필요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다른 학교의 경우 다른 언어권 학생들이 많으면 그에 따른 다문화 언어강사를 활용하여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형식이다.

A 초등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이주의 어려움이 있던 시기에도 러시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전학을 온 경우가 있었다.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어 학급이 없는 주변학교에서 전학을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A 초등학교의 고려인 아동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어교육이나 교육과정을 접하는 많다. 학교에서 한국어 학급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한국어 학급에서 서로 한국어를 배우며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장점은 이주 여성들에게 자녀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준다. 인근의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어학급 개설이 안 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한국어 학급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최근에 A 초등학교의 경우 인근에서 전학을 오는 경우가 늘었으며 고려인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에서 A 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해서 정착을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인 이주배경 아동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1) 연구자의 이해

연구자는 현재 A 초등학교에서 한국어학급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로 다문화 업무 및 세계시민교육 업무를 맡고 있다. 연구자는 학부 때 피아노 전공으로 음악교육학 학사 소지자로 중등 교원자격증 2급을 취득하였다. 초등학교에 한국어학급 운영 교사로 2019년도부터 A 초등학교에서 재직중이며 4년 이상 학교 현장에서 여러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생활적응의 모습을 보았으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특히 재한 고려인 학생들의 정체성 혼란의 모습에서 음악교육이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다문화교육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본 연구를 하였다. 평소에 음악을 통해 미적 감수성, 협동심, 정서적인 안정 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언어적으로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연구를 진행할 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소리로 소통이 가능한 수업을 구상했으며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력, 자아정체성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2) IRB승인 내용

IRB승인 내용에서 논문의 제목은 고려인 재외동포 초등학생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음악교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 했으며 연구 기간은 심의 승인 일자인 2023년 9월 20일부터 1년간 진행되며 승인번호는 230529-3A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까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에 미성년자나 외국인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 형태는 조사연구로 비중재적 관찰, 설문, 면담 연구를 포함한다. 연구수행시 IRB 직인이 있는 동의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본 연구에서 IRB는 FGI활동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에 관한 것이다. 해당 전문가 4인에게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음악교육 프로그램 구성

다문화 예술교육은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전달하며 감각과 이성의 조화를 꾀한다 (김혜은, 2012). 본 수업지도안은, 정서적 공감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사회 구성원 사람들의 고유성을 담고 있는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본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통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 개개인이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개발되었다. 수업지도안의 특징은, 주제중심 통합교육에서 제시한 다섯 단계로 수업을 구성하였고, 제재곡은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주제 중심으로 하여 고려인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고려인들의 민요인 고려아리랑을 제재로 사용한다.

#### 1) 주제중심 통합 수업

일반적으로 주제 중심 교육과정 통합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능력·흥미, 사회적 요구사항, 교과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주제에 맞게 조직하고 결합하여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제공하여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학생 참여적·주도적 교육과정이다(강충열, 1998). 주제 중심 통합수업은 전통적 교육 방법의 대안으로 나타났으며 새롭게 등장한 교육과정 수업 방식이다(정미향 외, 2013). 주제 중심 교육과정 통합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실생활과 연계되는 주제를 다양한 지식과 경험,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 주제 중심 수업은 학생들의 관심, 흥미, 사회적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능력 신장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생활과 연계된 수업을 할 수 있으며 배움이 삶으로 전이될 수 있다(신현재·강충열, 1998). 학자들마다 주제 중심 교육과정 통합을 정의하는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 주제 중심 통합수업, 주제 중심 교육과정, 주제 학습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제 중심 교육과정 통합은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와 학생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조현이, 2023).

## 2) 수업의 단계

이 장에서는 고려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주제중심학습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설정하여 6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을 설계하고 초등학교 음악교과에 적용한 과정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다문화 주제중심학습 프로그램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고려인 학생들이 본인들의 뿌리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갖는다. 학교현장에서 보면 고려인 학생들이 고려인의 정체성과 이주 과정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고려인의 의미와 나아가 본인들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므로 본인을 이해하고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고려인 학생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담는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정체성에 대해 찾아나가는 과정을 담고자 한다. 이는 그들이 갖는 특별한 혼성적인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음악을 매개로 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 세 가지 조건에 유의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초등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적합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 교육이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3가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주제중심 통합수업에 대해 대두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주제중심 통합수업을 제대로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주제중심 통합수업을 실행하는 것은 기존의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수업방법에서 변화를 하여 새로운 수업방법을 도전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가 중심이 되어 주제중심 통합수업의 내용이나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과에 적합한 교수학습모델이 개발되고 기본적인 교수학습 과정이 만들어져 제공되어야 한다. 주제중심 통합수업을 위한 교수법적 모델과 교수학습 방법 및 과정에 대한 기존의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ortham(1996)은 ① 주제를 토론하고 단원활동의 내용을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칠판에 열거하고 검토하는 계획단계, ② 학생들은 자신들의 흥미에 맞는 학습내용을 선택하여 프로젝트화하고 활동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실행단계를 포함하는 2 단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황지혜, 2019).

Meinbach-Rothlein-Fredericks(1995)는 ① 주제 선정의 단계, ② 주제와 관련된 기능, 목표, 활동을 결정하는 주제조직의 단계, ③ 주제학습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수집의 단계, ④ 주제학습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단계, ⑤ 주제단원 실행하는 단계 등 5단계 모델을 제시하였다(황지혜, 2019).

Lapp & Flood(1994)는 ① 학생과 함께 학습할 주제를 찾아내는 주제선정 단계, ②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③ 구체적인 활동을 찾아내는 활동단계, ④ 학습을 수행할 집단의 규모를 구성하는 단계, ⑤ 주제를 깊이 탐구하는 주제 확대 단계, ⑥ 다양하게 평가하는 단계 등 총 6단계로 구성된 모델을 구상하였다(황지혜, 2019).

Jacobs(1989)는 주제중심 통합수업을 위한 단계를 중심주제 선정, 주제를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하기, 학습 안내 질문의 구성, 수업 적용을 위한 학습지도안 설계로 제안하였고, Strube(1993)는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의 과정을 생각 모으기, 훌륭한 주제 선정하기, 학습 활동 계획하기, 학습자료 수집의 방법과 양의 결정, 최종 학습결과를 정리하는 계획 세우기, 목표 수행 일정 짜기, 학생들의 선택활동, 실행으로 개념화하였다(황지혜, 201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하여 최종 다섯 단계로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하도록 한다. ① 주제선정 단계, ② 자료 수집 단계, ③ 활동 단계, ④ 확대 단계, ⑤ 평가 단계로 정리하여 실행한다.

## 2. 음악교육 수업지도안

<표3> 1차 수업지도안

수업의 모형			
정체성 확립· 상호존중	자아정체성		자문화 의식
다문화 인성 구분	정서	인지	행동
차시	총 6차시		
음악활동	가창	감상	감상평, 활동지작성
수업지도안			
단원	우리의 음악	대상	초등학교3~4학년
학습주제	고려인음악과 한국전통 음악을 통한 다문화감수성 및 정체성의 형성		
학습목표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고려인아리랑과 아리랑의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 설명 할 수 있다.		
학습단계	주제선정-자료 수집-활동-확대 단계-평가		
학습자료	홀로아리랑 영상, 고려아리랑:천산의 디바 영화영상, PPT, 아리랑·고려아리랑 악보		
준비물	활동지, 필기도구		
학습형태	협동학습, 발표수업		



<b>단원</b>	통합수업		<b>교과서 쪽수</b>	·	
<b>본시 주제</b>	· 고려인음악과 한국전통 음악을 통해 다문화감수성 및 정체성을 형성한다.		<b>장소</b>	교실	
<b>학습목표</b>	·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고려인아리랑과 아리랑의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 설명 할 수 있다.				
<b>준비물</b>	· 활동지, 필기구				
<b>단계 (시간)</b>	<b>학습 요소</b>	<b>교수 - 학습 과정</b>	<b>수업 형태</b>	<b>지도상의 유의점</b>	<b>구성요소 적합성 및 타당성</b>
<b>도입 (5분)</b>	전시 학습	· 전시 학습 및 관련 내용을 복습한다. - 다양한 문화 및 나라의 음악 종류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일제 학습	· 전시학습 및 관련 내용을 상기시킨다.	
	학습 동기 유발	· 나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림, 사진, 음악자료를 제시한다. - 처음부터 아리랑이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고 질문을 하고 유추하도록 한다.	발표 학습	· 학생들이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경청하고 정리한다.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고려인아리랑과 아리랑의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 설명 할 수 있다.	일제 학습	· 학습목표를 이해하게 한다.	
<b>전개 (30분)</b>	개념 설명	· 아리랑에 대해 설명하고 가창수업을 진행한다. - 유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세부적인 활동을 직접 가창활동을 하면서 익힌다.	일제 학습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음악 활동	· 고려아리랑에 대해 설명하고 가창수업을 진행한다. - 유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세부적인 활동을 직접 가창활동을 하면서 익힌다. - 가사의 특징을 통해 제재곡의 느낌을 살려 부를 수 있도록 한다.	협동 학습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 원곡의 느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부를도록 한다.	

	발표 및 정리	· 감상문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 수업을 통해 한국의 애국가와 고려아리랑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을 학습한 후 느낀점 및 감상평을 적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 학습	· 학생들의 발표에 경청하도록 한다.	
정리 (5분)	학습 내용 정리	· 제재곡 가창수업 및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문답 학습	· 문답을 통해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형성 평가	· 학습한 내용을 간단한 질문이나 문제 풀이를 통하여 복습 확인한다.	개별 학습	· 학생들의 수업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	
	과제 제시 및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러시아 음악 '칼린카'에 대해 학습할 것을 예고한다. · 과제를 제시한다. - '칼린카'의 의미에 대해 조사해오도록 한다.	일체 학습	· 차시 내용을 확인한다.	

수업지도안은 공감의 정서 함양을 위한 가창 및 감상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본국의 문화와 현재 거주하는 문화와의 정서적 공감을 목적으로 '아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 중심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고려아리랑을 감상하며, 가창을 할 때는 학생들이 노래 주인공의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의 감정에 온전히 집중하여 감상하며 가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고려아리랑을 제재곡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고려아리랑의 음악적 배경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28)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에 앞서 2015년 초연한 '고려아리랑'은 재소 고려인을 위해 현재 고려인 문화관 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병학 시인이 작사하고, 고려극장 지휘자였던 한야코브씨가 작곡한 후 고려인이 노래를 불렀다. 동영상 '고려아리랑' 배경에는 고려인 선조들의 삶과 중앙아시아 개척,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이 오롯이 담겨있다.29)

가사는 "1절 원동땅(러시아 연해주) 불술기(증기기관차)에 실려서 카작스탄 중앙

28) [고려방송]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들려주는 '고려아리랑' 피어린 삶 담긴 애창곡 되다  
[출처] [고려방송]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들려주는 '고려아리랑' 피어린 삶 담긴 애창곡 되다  
[출처] [고려방송]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들려주는 '고려아리랑' 피어린 삶 담긴 애창곡 되다  
방송

29) <https://www.namdnews.com/> -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들려주는 '고려아리랑' 피어린 삶 담긴 애창곡 되다.



아시아 러시아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도 우리는 한가족 고려사람, 2절 진펄도 갈밭도 소금밭도 땀흘려 일구니 푸른 옥토 모진고난 이기고 일어서니 우리는 한민족 고려사람, 3절 아버님 남기신 선조의 얼 어머니님 물려 준 조상의 말 가꾸고 다듬고 지키리라 우리는 한겨레 고려사람,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고려아리랑” 이다.

본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입부에서는, 나라를 상징하는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는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을 위해 제재곡은 러시아 국가와 러시아 애니메이션 ‘마샤와 곰’의 음악을 사용한다.

전개부분의 1단계인‘경험’단계에서는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전통민요로 불리는 아리랑을 가창하면서 가사에 담겨있는 삶의 애환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본다. 활동은 가창활동으로 이루어지며, 가창 제재곡은 본아리랑이다. 학생들의 지식적인 이해부분과 정서적인 몰입을 돕기 위해 음악을 듣는 활동을 하는 중에는 아리랑을 불렀던 실제 아리랑과 관련된 시를 활용하여 함께 읽어준다. 또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아리랑과 관련된 역사가 담긴 사진자료들을 PPT자료를 활용하여 보여주고, 감상을 하면서 본인이 주인공의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하여 간단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 2단계인‘구조화’단계에서는, 고려아리랑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음악을 향유했던 배경을 설명하고 가창학습과 감상학습을 진행한다. 3단계인‘일반화’단계에서 결국의 고려인의 음악과 한국의 음악에는 차이가 없으며 한민족의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것임을 일깨워준다. 4단계에서는, 본인의 혼성성과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며 이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발전가능하며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자발적으로 정체성을 개발해나가는 것임을 지도한다. 또한 누구나 정체성의 혼란에 상황은 오며 장소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 3. 프로그램 내용타당도 검증

본 수업지도안은 1차 완성 후, 1인의 다문화 전문가, 1인의 음악교육 전문가, 2인의 초등교육 및 다문화교육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여 2차 완성하였다. 연구자는 총 4인의 전문가 집단을 섭외하였고 내용 타당도 검증의 부분을 의뢰한 후, 각각의 전문가에게 검토 및 점검을 받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거나 오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활용했을 때의 긍정적인 결과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미있는 조언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었기에, 4인의 검토를 모두 취합하고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지도안을 수정하였다. 초기에 작성했던 수업지도안의 내용 중 차시별 활동내용을 적게 하는 대신, 수업 차시를 6차시까지 확대하였고 활동 간 이론적 배경의 내용과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총 2회의 수정과정 끝에 수업 지도안을 수정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수업지도안과 함께 10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 형식의 설문지와 서술형의 질문이 포함된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며, 구두나 이메일 등의 문서로 전달받은 내용을 기록하였다. 설문지는 문항 당 리커트 척도 5점인 질문 10개를 포함하며 ‘교수-학습 방법, 교육 자료,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수업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4인의 점수 평점은 32.25점이었고, 대체적으로 수업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의 내용에 긍정적이고 기대의 반응을 보였다. 그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서술형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수업지도안의 장점

전문가	의견
A	◎ 고려인 아동들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앞으로 학교교육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 기대됨.
B	◎ 고려인 아동들의 정체성 및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인 부분에 대해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음악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함.



	<p>◎ 음악교육을 통해 고려인 아동들이 음악활동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함.</p> <p>◎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의 배경에 따라 음악교육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음. 특히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 관리 역량 등을 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이를 강화하도록 활용 가능함.</p>
C	<p>◎ 본 수업지도안은 고려인아리랑과 아리랑의 특징을 이해하고 두 곡을 비교함에 있어 감상, 가창 등의 음악활동을 활용하여 다문화감수성 및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있어 목표, 주제, 방법 등이 명확하고 구현가능성이 높은 지도안이라 판단됨.</p> <p>◎ 대상학년(3,4학년)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적 요소(가창)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관심 및 흥미유발, 참여의지 상승 등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한 지도안이라 판단됨.</p> <p>◎ 2024학년도 1,2학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매년 두 개 학년씩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2026학년도에는 전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운영 될 예정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기본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앞으로 학교현장에 적용하여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p>
D	<p>◎ ‘아리랑’은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서정적이고 정신이 담겨 있는 좋은 제재곡임. 이를 통해 한민족의 역사를 돌이켜 볼 수 있고 시대와 장소, 인종과 언어를 떠나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p> <p>◎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음악과 수업지도안이 많이 없는 편인데 좋은 교육자료가 될 것 같음.</p>



2) 수업지도안의 수정, 보완해야할 점

전문가	의견
A	<p>◎ 연구의 목적은 고려인 재외동포 아동의 일상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과 그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함. 그렇다면 첫째, 위의 지도안은 보통 음악수업의 지도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타내야 함. 둘째, 제재곡 아리랑으로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p>
B	<p>◎ 초등학교 3-4학년에게 디아스포라와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배경 설명이 필요함. 연구에서 고려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도입이 요구됨.</p> <p>◎ 도입부에서 “나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림, 사진, 음악자료를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여 제시할 것인지 나타낼 것.</p> <p>◎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주제가 명확하게 제시될 것.</p> <p>◎ 학습 목표가 “고려인아리랑과 아리랑의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 설명할 수 있다.”임. 이러한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 타당성이 잘 설명되어야 할 것.</p> <p>◎ 이 연구에서 “경험 중심 다문화교육”을 표방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 내용이 드러나면 함. 이 경험이 단지 음악을 감상하고 노래를 불러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다문화 감수성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를 교육활동에서 드러내야 할 것.</p> <p>◎ 학습 자료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은 좋으나 수업 시간 안에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할 것.</p> <p>◎ 학습 형태가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길.</p> <p>◎ 가사의 특징을 이해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3-4학년의 수준에서 가사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두 아리랑의 선율과 곡의</p>

	<p>진행에 대한 느낌을 음악적으로 체험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추가할 것.</p> <p>◎ 전반적으로 수업지도안이 연구에서 지향하는 다문화교육 이론(논문의 이론적 배경)과 잘 접목시킬 것. 예컨대, 정체성, 다양성, 평등 및 정의, 시민성, 문화창조성 등을 구현되는 과정을 담아내야 함.</p> <p>◎ 많은 연구에서 디아스포라의 이주 경험과 정체성은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 개념으로 재단 할 수 없기에 “혼성성(hybridity)”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 연구자 또한 논문에서 디아스포라의 주체들이 가진 사이성(in-betweenness)과 이중성에 주목을 한다고 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화의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정체성을 가진 고려인 아동들과 함께 하는 음악수업 활동에서 ‘아리랑’을 통해 “고려인의 음악과 한국의 음악에는 차이가 없으며 한민족의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것임을 일깨워준다”고 음악활동을 마무리 하는 것이 아쉬움. 물론 아리랑을 통해 하나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일 것. 하지만 고려인에 대한 다문화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함께 고려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기재될 것.</p> <p>◎ 연구자는 4단계에서 “혼성성과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하여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제시함. 이는 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이에 따라 이것이 음악 활동 내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수업 지도안에 제시될 필요가 있음.</p>
C	<p>◎ 수업지도안 중 「교수-학습 과정」 부분에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맥락과 흐름이 보여지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p> <p>(예시 - T: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발표해 볼까요? S1: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음악의 종류에 대해 배웠습니다)</p> <p>◎ 수업 주제인 “다문화감수성 및 정체성 확립”은 가치·태도에 중점을 둔 주제인데 실제 지도안 상의 학습목표는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 설명할 수 있다.”라는 지식에 중점을 둔 학습목표로 설정함. 1차시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업 주제인 만큼 지식, 기능, 가치·태도에</p>



	<p>중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3~6차시 정도의 수업지도안이 있어야 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p> <p>◎ 30분의 수업분량을 차지하는 전개부분에서 “가창”이라는 기능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감상문을 작성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활동이라면 “가창”보다는 “감상”을 통해 해당 부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p>
D	<p>◎ 수업지도안을 최소 5~6차시 정도 만들어서 활동을 진행하면 좋을 듯 함.</p> <p>예를 들면 1차시: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서정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자(감상)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정서를 이야기 해 본다(발표 등)</p> <p>2차시: 고려인 음악을 감상해 보고 - 인종, 문화적 고정관념, 편견 등의 발견해 보기</p> <p>3차시: 사회 통합수업. 고려인들의 유래, 이동경로, 실태 조사해보기 - 인종, 문화적 고정관념, 의상, 위인 등 탐구해 보기</p> <p>4차시: 아리랑과 고려인 음악 불러보기(가창) - 인종, 문화적 고정관념, 편견 등을 해소해 보기</p> <p>5차시: 가사 바꾸어 부르기(내가 고려인이라면 어떤 가사를 넣을 것인지)- 왜 그런 내용을 넣었는지 토론하며 공감해 보기</p> <p>6차시: 활동 후 학습한 내용을 느낀점, 감상하기 - 정체성 확립하기</p> <p>1차시만 있어서 이걸로 프로그램 검증 설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p> <p>◎ 다문화 + 음악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자료를 조금 더 검토해 야함. - 이론적배경에서 음악교육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보완할 것. - 음악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조금 더 많이 첨가할 것. - 선행연구(음악을 통한 다문화 연구)에 대한 부분 세밀하게 할 것.</p>



#### 4. 수정된 프로그램 제시

차시	내용	교육과정 핵심역량
1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서정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자(감상) 아 리랑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정서를 이야기 해 본다(발표 등)	심미적 감성 역량
2	고려인 음악을 감상해 보고 - 인종, 문화적 고정관념, 편견 등 의 발견해 본다.	
3	사회 통합수업. 고려인들의 유래, 이동경로, 실태 조사해보기- 인종, 문화적 고정관념, 의상, 위인 등 탐구해 본다.	창의적 사고 역량
4	아리랑과 고려인 음악 불러보기(가창) - 인종, 문화적 고정관념, 편견 등을 해소해 본다.	공동체 역량
5	가사 바꾸어 부르기(내가 고려인이라면 어떤 가사를 넣을 것인 지)- 왜 그런 내용을 넣었는지 토론하며 공감해 본다.	
6	활동 후 학습한 내용을 느낀점을 작성한다. - 정체성 형성하기	

#### <1차시 지도안>

단원	통합수업	교과 서 쪽수	.		
본시 주제	· 고려인음악과 한국전통 음악을 통 해 다문화감수성 및 정체성을 형성한 다.	장소	교실		
학습목표	· ‘아리랑’을 감상하고 아리랑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느껴보고 민족 적 정서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				
준비물	· 활동지, 필기구				
단계 (시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과정	수업 형태	지도상의 유의점	교육과정 핵심역량



도입 (5분)	전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 및 관련 내용을 복습한다.</li> <li>- 다양한 문화 및 나라의 음악 종류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li> </ul>	일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학습 및 관련 내용을 상기시킨다.</li> </ul>	
	학습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림, 사진, 음악자료를 제시한다. 특히 민족성을 대표하는 자료를 제시한다.</li> <li>- 태극기, 민요, 민속놀이등의 사진자료나 음악자료등을 활용하여 제시한다.</li> </ul>	발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li> <li>·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경청하고 정리한다.</li> </ul>	심미적 감성 역량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li> <li>- '아리랑'을 감상하고 아리랑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느껴보고 민족적 정서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li> </ul>	일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목표를 이해하게 한다.</li> </ul>	
전개 (30분)	개념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랑에 대해 설명하고 감상수업을 진행한다.</li> <li>-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들려주어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가사에 집중하여 감상 수업을 하도록 한다.</li> <li>· 아리랑을 감상하고 감상평에 대해 발표한다.</li> <li>- 학생들이 감상을 하고나서 느끼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발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음중심 수업을 통해 학습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심미적 감성 역량
	음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민족적 정서에 대해 설명한다.</li> <li>- 선비정신, 한의 정서 등의 다양한 한국의 민족적 정서에 대해 설명한다.</li> <li>- 민족적 정서 중에 '한'의 정서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아리랑을 감상한다.</li> </ul>	일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li> </ul>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발표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상문을 작성하고 발표한다.</li> <li>- 민족정 정서를 배우기전과 후의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독려한다.</li> </ul>	발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발표에 경청하도록 한다.</li> </ul>	



정리 (5분)	학습 내용 정리	· 감상수업 및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문답 학습	· 문답을 통해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형성 평가	· 학습한 내용을 간단한 질문이나 문제 풀이를 통하여 복습 확인한다. - 아리랑에 대한 내용과 한국의 민족적 정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만들어서 문제풀이를 통해 평가를 한다.	개별 학습	· 학생들의 수업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	
	과제 제시 및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고려인의 음악인 '고려 아리랑'에 대해 학습할 것을 예고한다.	일제 학습	· 차시 내용을 확인한다.	

<2차시 지도안>

단원	통합수업		교과 서 쪽수	·	
본시 주제	· 고려인음악과 한국전통 음악을 통해 다문화감수성 및 정체성을 형성한다.		장소	교실	
학습목표	· 고려인 음악을 감상해 보고 인종, 문화적 고정관념, 편견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준비물	· 활동지, 필기구				
단계 (시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과정	수업 형태	지도상의 유의점	교육과정 핵심역량
도입 (5분)	전시 학습	· 전시 학습 및 관련 내용을 복습한다. -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의 특징에 대해 복습하고 한국의 민족정서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한다.	일제 학습	· 전시학습 및 관련 내용을 상기시킨다.	
	학습 동기 유발	· 고려인의 음악을 상징하는 다양한 그림, 사진, 음악자료를 제시한다. - 고려인에 대해 잘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조성하며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본인들의 지식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발표 학습	· 학생들이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경청하고	



				정리한다.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li> <li>- 고려인 음악을 감상해 보고 인종, 문화적 고정관념, 편견 등을 발견할 수 있다.</li> </ul>	일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목표를 이해하게 한다.</li> </ul>	
전개 (30분)	개념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인의 음악인 '고려아리랑'을 감상한다.</li> <li>- 고려인의 음악 중 대표적으로 고려 아리랑에 대해 감상을 한다.</li> <li>- 학생들이 생각하는 고려인의 음악에 대해 자연스럽게 발표하고 음악을 감상한다.</li> </ul>	일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li> </ul>	심미적 감성 역량
	음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 아리랑의 특징을 설명한다.</li> <li>- 고려아리랑의 가사에 집중하여 유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여 감상하고 느낌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한다.</li> <li>· 고려인으로서의 생각했던 생각이나 편견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한다.</li> <li>- 학생들 스스로 느끼고 생각했던 고려인의 인종, 문화적 고정관념, 편견 등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한다.</li> </ul>	발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li> </ul>	심미적 감성 역량
	발표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상문을 작성하고 발표한다.</li> <li>- 수업을 하기 전에 생각했던 고려인으로서의 인종, 문화적 고정관념 편견 등을 작성하고 수업 후에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변화에 대해 작성하고 발표한다.</li> </ul>	발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발표에 경청하도록 한다.</li> </ul>	심미적 감성 역량
정리 (5분)	학습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상수업 및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본다.</li> </ul>	문답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답을 통해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li> </ul>	
	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한 내용을 간단한 질문이나 문제 풀이를 통하여 복습 확인한다.</li> <li>- 고려아리랑에 대한 내용과 고려인의 민족적 정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만들어서 문제풀이를 통해 평가를 한다.</li> </ul>	개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수업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li> </ul>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li> <li>- 사회수업 통합학습을 통해 고려인의</li> </ul>	일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 내용을 확인한다.</li> </ul>	



및 차시 예고	유래와 이동 및 특징에 대해 학습할 것을 안내한다.			
---------------	---------------------------------	--	--	--

<3차시 지도안>

단원	통합수업	교과 서 쪽수	.		
본시 주제	· 고려인음악과 한국전통 음악을 통 해 다문화감수성 및 정체성을 형성한 다.	장소	교실		
학습목표	· 고려인들의 유래, 이동경로, 실태 조사하고 인종, 문화적 고정관념, 의상, 위인 등 탐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준비물	· 활동지, 필기구				
단계 (시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과정	수업 형태	지도상의 유의점	교육과정 핵심역량
도입 (5분)	전시 학습	· 전시 학습 및 관련 내용을 복습한다. - 고려아리랑에 대한 가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시의 학습을 확인한다.	일체 학습	· 전시학습 및 관련 내용을 상 기시킨다.	
	학습 동기 유발	· 고려인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림, 사진, 그래프자료를 제시한다. - 고려인에 대해 학습할 것을 확인한 다. 고려인의 유래와 한국유입의 이 동경로 및 실태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을 안내한다.	발표 학습	· 학생들이 떠오 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 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 학생들이 발표 한 내용을 경청 하고 정리한다.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 고려인들의 유래, 이동경로, 실태 조사하고 인종, 문화적 고정관념, 의상, 위인 등 탐구 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일체 학습	· 학습 목표를 이해하게 한다.	
전개 (30분)	개념 설명	· 고려인의 특징에 대해 조사한다. - 미리 준비한 서적자료 및 전자기기 등을 활용하여 고려인의 발생과 유 형 및 러시아어권 지역으로의 이동 경로등을 조사한다. - 이때 모듈별 협동학습을 활용하고	협동 학습	· 학생들이 적극 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 다.	공동체 역량



		조원별로 내용을 나누어서 고려인의 기본적인 특징과 이동경로 및 한국에서의 거주실태에 대해 조사한다.			
	사회 통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li> <li>모둠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다.</li> <li>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본인의 모둠과 비교하여 경청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li> </ul>	협동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li> </ul>	협력적 소통 역량
	발표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기록지를 작성하고 발표한다.</li> <li>수업을 통해 기존의 고려인의 특징과 유래 등에 대해 알고 있었던 내용과 학습 후에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교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li> </ul>	발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의 발표에 경청하도록 한다.</li> </ul>	
정리 (5분)	학습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인의 기본적인 특징과 유래 및 이동경로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li> </ul>	문답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답을 통해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li> </ul>	
	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한 내용을 간단한 질문이나 문제 풀이를 통하여 복습·확인한다.</li> </ul>	개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의 수업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li> </ul>	
	과제 제시 및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li> <li>아리랑과 고려아리랑에 대해 가창수업을 진행할 것을 안내한다.</li> </ul>	일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시 내용을 확인한다.</li> </ul>	

<4차시 지도안>

<b>단원</b>	통합수업	<b>교과서 쪽수</b>	.
<b>본시 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인음악과 한국전통 음악을 통해 다문화감수성 및 정체성을 형성한다.</li> </ul>	<b>장소</b>	교실
<b>학습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리랑과 고려아리랑을 가창하고 발표를 통해 인종, 문화적 고정관념, 편견 등을 해소할 수 있다.</li> </ul>		
<b>준비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지, 필기구</li> </ul>		



단계 (시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과정	수업 형태	지도상의 유의점	교육과정 핵심역량
도입 (5분)	전시 학습	· 전시 학습 및 관련 내용을 복습한다. - 고려인의 유래 및 이동경로와 본국의 거주실태등의 내용에 대해 복습한다.	일제 학습	· 전시학습 및 상 관련 내용을 상기시킨다.	심미적 감상 역량
	학습 동기 유발	· 아리랑과 고려아리랑의 가사를 제시 하여 차이점을 찾도록 한다. - 가사에서 보이는 특징을 통해 차이 점을 찾고 오늘 학습할 가창수업에 대해 안내한다.	발표 학습	· 학생들이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경청 하고 정리한다.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 아리랑과 고려아리랑을 가창 하고 발표를 통해 인종, 문화 적 고정관념, 편견 등을 해소 할 수 있다.	일제 학습	· 학습 목표를 이해하게 한다.	
전개 (30분)	개념 설명	· 아리랑과 고려아리랑에 대해 학습했던 내용을 확인한다. - 유래, 가사에 담긴 내용의 특징 및 민족적 정서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상기시킨다.	일제 학습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심미적 감성 역량
	음악 활동	· 아리랑과 고려아리랑 가창수업을 진행한다. - 교사의 시범을 따라 들으며 가창수업을 진행한다. 실음중심 수업이 될 수 있도록하며 두 가지 노래의 차이점과 특징을 살려 노래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가사의 특징을 통해 제재곡의 느낌을 살려 부를 수 있도록 한다.	협동 학습	· 실음중심 수업 즉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 원곡의 느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부르도록 한다.	
	발표 및 정리	· 수업기록지를 작성하고 발표한다. - 가창을 통해 발견한 아리랑과 고려아리랑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집중하며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발표 학습	· 학생들의 발표에 경청하도록 한다.	
정리 (5분)	학습 내용	· 제재곡 가창수업 및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문답 학습	· 문답을 통해 이번 시간 학습	



정리			내용을 정리한다.	
형성평가	· 학습한 내용을 간단한 질문이나 문제 풀이를 통하여 복습·확인한다.	개별 학습	· 학생들의 수업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	
과제 제시 및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창작활동 즉 가사만들어 부르기 활동을 할 것을 안내한다.	일체 학습	· 차시 내용을 확인한다.	

<5차시 지도안>

단원	통합수업		교과서 쪽수	·	
본시 주제	· 고려인음악과 한국전통 음악을 통해 다문화감수성 및 정체성을 형성한다.		장소	교실	
학습목표	· 가사 바꾸어 부르기의 창작활동을 통해 민족정체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준비물	· 활동지, 필기구				
단계 (시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과정	수업 형태	지도상의 유의점	교육과정 핵심역량
도입 (5분)	전시 학습	· 전시 학습 및 관련 내용을 복습한다. - 아리랑과 고려아리랑을 가창해본다.	일체 학습	· 전시학습 및 상 관련 내용을 기시킨다.	
	학습 동기 유발	· 창작활동과 관련한 영상자료 및 사진 자료를 제시한다. - 창작활동을 즉, 가사바꾸기 활동을 안내한다.	발표 학습	· 학생들이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 가사 바꾸어 부르기의 창작활동을 통해 민족정체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일체 학습	· 학습 목표를 이해하게 한다.	



전개 (30분)	개념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랑과 고려아리랑의 내용을 정리하고 가사바꾸기 활동을 안내한다.</li> <li>- 아리랑과 고려아리랑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가사바꾸기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및 역사적상황을 고려하여 창작활동을 하도록 한다.</li> </ul>	일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li> </ul>	공동체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음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바꾸기 창작활동을 한다.</li> <li>- 창작활동을 어려워하는 학습자를 생각하여 예시를 만들어 제시하고 지난시간까지 학습한 한국인과 고려인의 특징이나 민족적 정서들을 제시하여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li> <li>- 본인이 만든 가사를 넣어 직접 가창하거나 가사를 발표하는 활동을 한다.</li> </ul>	협동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li> </ul>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발표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기록지 작성하고 발표한다.</li> <li>- 직접 가사를 바꾸어보는 창작활동을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했는지 기록하고 수업하기 전과 후의 달라진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작성 및 발표한다.</li> </ul>	발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발표에 경청하도록 한다.</li> </ul>	
정리 (5분)	학습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만든 가사를 보여주고 직접 가창을 해보며 정리한다.</li> </ul>	문답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답을 통해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li> </ul>	
	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한 내용을 간단한 질문이나 문제 풀이를 통하여 복습·확인한다.</li> </ul>	개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수업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li> </ul>	
	과제 제시 및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li> <li>- 마지막 6차시 수업을 할 것을 안내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오도록 제시한다.</li> </ul>	일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 내용을 확인한다.</li> </ul>	

<6차시 지도안>

단원	통합수업	교과 서 쪽수	.
본시 주제	· 고려인음악과 한국전통 음악을 통	장소	교실



		해 다문화감수성 및 정체성을 형성한다.			
<b>학습목표</b>		·가창, 감상, 창작의 활동을 정리한 후 학습한 내용을 느낀점을 작성하므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b>준비물</b>		·활동지, 필기구			
단계 (시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과정	수업 형태	지도상의 유의점	교육과정 핵심역량
<b>도입 (5분)</b>	전시 학습	· 전시 학습 및 관련 내용을 복습한다. - 앞서 진행한 총 5차시의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을 상기시킨다.	일제 학습	· 전시학습 및 관련 내용을 상기시킨다.	
	학습 동기 유발	· 한국인, 고려인 등의 관련한 내용과 정체성과 관련한 그림, 사진, 매체의 자료를 제시한다. - 한국인과 고려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고 정체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 학습	· 학생들이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경청하고 정리한다.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 가창, 감상, 창작의 활동을 정리한 후 학습한 내용을 느낀점을 작성하므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일제 학습	· 학습 목표를 이해하게 한다.	
<b>전개 (30분)</b>	개념 설명	· ‘정체성’ ‘민족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 및 민족정체성에 대한 요소와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 대표적인 정체성이론에 대해 제시하고 학생들 개인의 경우에 대해 대입하여 학습하도록 안내한다. · 정체성 이론의 내용을 만들어본다. - 본인의 입장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하여 나만의 정체성이론에 대해 정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제 학습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협력적 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발표 및 정리	· 수업기록지를 작성하고 발표한다. - 정체성에 집중하여 기록지를 작성한다. 학생 본인이 기존에 생각했던 정체성에 내용과 결론적으로 현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 학습	· 학생들의 발표에 경청하도록 한다.	

		본다.			
정리 (5분)	학습 내용 정리	· 가창, 감상, 창작 활동의 내용을 정리한다.	문답 학습	· 문답을 통해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형성 평가	· 학습한 내용을 간단한 질문이나 문제 풀이를 통하여 복습 확인한다.	개별 학습	· 학생들의 수업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	
	과제 제시 및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러시아 음악 '갈린카'에 대해 학습할 것을 예고한다. · 과제를 제시한다. - '갈린카'의 의미에 대해 조사하도록 한다.	일체 학습	· 차시 내용을 확인한다.	

전문가 평정을 받은 뒤, 총 6차시 지도안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해당 차시마다 해당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리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한 음악 활동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수업 지도안으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특별히 다문화교육과 음악교육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더욱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록지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많이 담고 매 차시 정리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해당 기록지는 6차시의 모든 수업 프로그램이 종료 될 때 학생들 스스로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음악과 성격에서는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개인의 음악적인 발달과 심리 정서적 발달과 함께 다양한 전인적 성장 즉, 정의적 영역까지의 발달을 이끌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가 제시한 지도안의 내용을 보면 지도안의 각 차시 및 내용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여 본 활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은 자신 주변의 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협력적 음악 경험을 통해 자존감·협동심·소속감 등의 인성을 도야하며, 지역·세대·계층 간 음악적 교류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자가 제시하는 음악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본



인 스스로 자존감과 협동심 등의 정의적 영역을 발달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소속감이나 정체성 등을 스스로 이해하며 가지고 있는 문제나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본 프로그램 및 지도안이 가지고 있다. 또한 주제중심 수업 모형을 활용하므로 “아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사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아리랑의 음악을 통해 주제중심 수업에 맞는 수업의 내용을 구상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문제에 한 걸음 접근하여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특히 다문화 이해수업과 같은 수업은 특별 활동 수업으로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수업에도 무리가 없는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였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를 통해 교사가 주체가 아닌 학생들 주체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구성하여 제시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재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교 학생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음악 수업지도방안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음악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다양한 다문화 교육이론 및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 선택한 '주제중심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교육 이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6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단계에서 경험중심 다문화 교육이론에 따라 ① 주제선정 단계, ② 자료 수집 단계, ③ 활동 단계, ④ 확대 단계, ⑤ 평가 단계의 5단계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교실 내에서 자신의 모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느낀점이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자신의 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력 및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 수업에서 자아정체성과 자문화 의식을 하위요소로 두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다중적 자아상 확립과 타인의 정체성 존중 그리고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확립을 세부내용으로 하여 지도안 내용에 담기도록 한다. 많은 교육이론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인지적 측면에 앞서 정서적 측면을 내세운 것은 타 문화권의 사람 역시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서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식(Banks, 추병완, 은지용)의 촉구'가 인지적 이해에 앞서 반편견에 대한 강한 심리적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며, 음악은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적합한 매개체라는 것을 특징으로 갖는 교과이기 때문이다(이울경, 2017). 수업에 매개로 사용하는 제재곡은 주제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따라 '아리랑'을 주제로 삼아 고려인 음악과 한국의 전통음악의 공통점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고려아리랑'으로 한다. 1차적인 음악프로그램 즉 수업지도안 개발 후, 본 수업 지도안은 음악교육 전문가 1인, 다문화 전문가 1인, 초등교육 전문가 2명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협의 및 피드백을 받은 후, 조언에 따라 총 2회 수정작업을 하였으며 수정 후에 동일한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아 Likert 척도 총 5점을 최고점으로 하는 10문항의 설문지에서 평점 32.25점을 받았다. 본 연구는 음악 교과수업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

지고 있는 음악을 학습하고 다른 문화의 역사·문화적 이론적 배경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다문화교육이론을 적용하여 정의적인 부분을 발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한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음악 수업시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나마 모국의 음악을 통해 역사적 흐름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 존재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나감으로 미래의 정서적·인지적으로 올바르게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교과로 생각되는 음악교과에, 다양한 시도의 다문화적 교육 전략 및 이론적 배경을 적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 지도안이 개발되기를 기대하며, 본 수업 지도안을 근거로 수업 지도 방안 연구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적용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재한 고려인 동포 초등학생의 입국시 관리, 교육하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고려인 동포 학생들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부모나 양육자가 알아서 정보를 습득하고 거주지를 정하고 거주지 주변의 학교나 시설 등의 정보를 스스로 이해하는 환경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나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이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며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을 제외한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는 문화·언어·환경에 대해 혼란을 겪으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입국하는 고려인 동포 학생들을 관리 및 교육하는 시설을 설립하여 최소한의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제언한다.

둘째, 재한 고려인 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체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사정이나 환경에 대해 면담을 하고 교육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다수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어도 면밀하게 신경쓸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 학생들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교육청에서 파견을 하거나 다문화 전문가, 다문화 업무 담당교사 들을 활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본인의 뿌리에 대해 본인들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이



해하고 적응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정교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거나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 편입학하여 학교생활을 시작하여 적응할 때 초기교육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셋째, 고려인 동포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관심을 두고 해당하는 교육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나 교육의 내용을 보면 인지적인 부분 즉, 이론적 이해에 대한 교육이나 언어 습득에 대한 부분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하고 중시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의 발달과 해결이다. 학생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기까지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면 결국 해소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정의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반대로 언어습득이나 이론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참고문헌

- Kim JaeHyee(2023). A Study on the Middle School Blended Appreciation Class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of Core Competencies and Achievement Standards by the 2022 Music Curriculum.
- Merriam(1994). The Glacier Express Jacqueline Merriam-Paskow. Focused on the 3rd grade Music Program for Multicultural Education.
- 강정은(2018). 음악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 지도 방안 연구 : 제주도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 A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Teaching Plan related to music : Focused on Multicultural students in Jeju.
- 강충열(1998). 주제중심 교수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 강충열, 권동택, 정광순(2010). 주제중심 학습프로그램(점프 리더)이 통합적 사고 성향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에 미치는 효과.
- 교육부(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제2022-33호.
- 김경학(2014).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 김경학(2015).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에 관한 연구 :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이주자 사례.
- 김경학(2018). 국내 고려인 아동의 국제 이주 경험과 초국적 정체성.
- 김경학(2018). 국내 고려인 아동의 국제 이주 경험과 초국적 정체성: 광주광역시 고려인 아동을 중심으로.
- 김다현(2022). 고려인 이주배경 아동의 혼성성과 정체성 연구,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승력(2017). 안산 고려인 현황과 지원활동.
- 김영수, 강충열(2008). 주제중심 통합학습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김재기(20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 귀환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특성.



- 김정선(2006).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9종의 음악 교과서 분석 : 중학교 2학년 중심으로.
- 김지나(2016). 고려인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통한 문화적응 과정 경험연구 : 우즈베키스탄 출신을 중심으로.
- 김지인(2017).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예술치료 사례 연구 = Research on arts therapy for improving two immigrant adolescents' self-esteem.
- 김지인(2017).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예술치료 사례 연구.
- 김지현(2016). 성인의 악기활동이 삶의 질과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the Impacts of Playing Musical Instruments on the Quality of Life and Alleviation of Stress.
- 김현(2011).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시기를 중심으로
- 김후자, 김정남(2001). 질적연구로서의 포커스그룹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 박경환(2007). 디아스포라 주체의 비판적 위치성과 민족 서사의 해체.
- 박민수(2015).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 박신규(2020). 귀환 재외한인청소년의 유형별 이주특성과 정체성 형성 분석:중국 조선족과 고려인 출신을 중심으로.
- 박주만(2011). 주제중심의 통합적 국악수업이 초등학생의 음악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 박주만(2011). 주제중심의 통합적 국악수업이 초등학생의 음악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 박주희, 정진경(2008).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의 타당화 연구.
- 배재정(2010). 유아교사의 다문화적 감수성 발달 및 평가 방안 탐색.
- 백미순, 장인실(2014). 다문화 교사교육과정을 위한 초등교사의 문화지능 연구.
- 백승영(202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및 자존감 향상연구 음악치료메타분석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ociality and Self-esteem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of Music Therapy.
- 선봉규, 파르피에브 스톨름(2018). 한국에 귀환 이주한 고려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손혜현(2013). 음악과 타 교과와의 주제중심 통합수업을 위한 지도방안 = (The)teaching method for the theme-centered integrated instruction of music and other subjects.
- 엄명용(2013). 상호작용성이 유희성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오 예카테리나(2021). 고려인동포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관한 경험 연구 - 경주시 거주 청소년을 중심으로 -
- 오성은(2019).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체성 구성 경험에 대한 이해.
- 올포트(Allport, 1958).
- 유은경, 장인실(2014). 초등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과 실행에 대한 연구.
- 윤소희(2023). 국악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국악 지도방안 :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 Teaching approach to Enhancing sensitivity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 Focused on the 3rd grade -
- 윤영미, 박혜영(2020).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음악 중재연구에 관한 문헌고찰 = A literature review of music intervention studies on psychological suppor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윤지원(2012). 음악활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정서발달에 주는 교육적 의미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 윤지원(2012). 음악활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정서발달에 주는 교육적 의미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 A Hermeneutic Study on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Music Activities to Emotional Development of Early Children in Multi-Culture-Families.
- 이남주(2015). 국내거주 고려인 노동자 부부들의 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이남주(2019). 국내 거주 고려인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이남주, 김민(2017).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이울경(2017). 다문화교육을 위한 음악 수업지도방안 연구 = A Development of a Music Lesson Pla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 전예지(2021). 청소년 정체성탐구를 위한 다문화미술교육 지도방안 연구 : 멀티페르소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art education guide for the investigation of youth identity : centering on multi-persona.



- 전지연(2015). 국악교육이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문화적응과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 남한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 정미향, 정광순(2013). 주제 중심 통합 수업 과정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기술.
- 조경진(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Research analysis and future directions of music education programme for adolescent from multicultural family.
- 조현이(2023).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연극 프로그램 실행 연구 : 주제 중심 교육과정 통합을 중심으로.
- 최윤영(202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기존중감 향상을 위한 가창 프로그램 개발.
- 허영훈(2022). 안성 내리에 거주하는 고려인 학생들의 인식과 삶: 다문화국제혁신학교 K초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홍정민(2022). 국내 거주 고려인 아동의 정체성과 어울림 양상- 충남 A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 황지혜(2019).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주제중심통합수업의 구안과 실천.

## 서적

- A.P.메리엄(1964). 「음악 인류학」
- 김혜은(2012).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 호미 바바(2012).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
- 김계르만(2013). 「나는 고려사람이다」

## 연구보고서

- 교육부(2023). 2023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2015).
- 법무부(2022). 2022년 10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Abstract

# Research on music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identity of Koryo-saram overseas korean elementary school

Ji-Eun Han

Ph. 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soo-jung park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February, 202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usic education activity program to form the ident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Koreans in Korea. As the number of Korean children who existed as part of multicultural students in our society gradually increased, they became a group called 'Korean compatriots' and are attracting new attention as members of our society and education. Unlike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of Koreans, they have a difference of 1.5 generations, which is characterized by being born in Russia or Central Asia and having migrated to Korea. With these characteristics, it can be seen that their identity, ethnicity, and meaning of country contain dual meanings. In addition, the process or definition of each individual's adaptation can be changed through the act of interpreting and sharing the experience of migration with their surrounding peers and famil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tents of a class as 'music education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children interpreting and sharing these experiences of migration. Music education activities have a transcendent meaning in that communication is possible by drawing artistic sensitivity and musicality from human instinct beyond the linguistic barrier that greatly affect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identity. Children become subjects through music education, interpret their daily experiences, and based on this, the way they form their identity independently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This study presents music education activities in the form of instructional plans that can be implemented in elementary schools where children of overseas Koreans residing in Goryeo live in N-dong, Namdong-gu, Incheon.

Children of Goryeo live using Korean culture, education, and language at school, and after school, they are forming a culture by using their home culture and language to travel back and forth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meantime, children represent elements that they feel familiar with and like as the basis of their identity through the expression 'we'. At this time, 'we' can be said to be hybrid in that its boundaries are variable and cannot be defined as a single country or nation. The fact that Korean children are Koreans and migrants leads to gaze that demands behavior from specific national identities and conventional attitudes accordingly. This gaze becomes a restriction on behavior and identity tension for children.

It is meaningful to share this experience of Korean children with peer groups through music education activities, relieve constraints and tension, and captur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ir own identity through the medium of 'music' that can be accessed comfortably in everyday life. It also shows that Korean children are not passively adapting and assimilating to the dominant culture, but rather are subjective beings who secure the hybridity that stems from their own migration experiences as the basis for their identity.

Keywords: Koryo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igrant backgrounds, diaspora, hybridity, identity, music education activities.



<부록-1> 전문가집단 프로그램 검증 설문지

**프로그램 검증 설문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영역	평가요소	문 항	평가요소 세부내용	LIKERT 척도				
				1	2	3	4	5
프로 그램 편성 및 운영	요구반영	1	수업지도안은 초등학교 3~4학년의 학습적 흥미를 고려하였는가?	1	2	3	4	5
	학년별 수준고려	2	수업지도안은 초등학교 3~4학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구성되었는가?	1	2	3	4	5
	활동 구성	3	지도안에 구성된 활동들은 주제에 적합하며 상호체계적이고 연계성 있게 구성되었는가?	1	2	3	4	5
	시간운영	4	수업지도안의 진행에 있어 시간분배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1	2	3	4	5
수업 내용	내용포함	5	인종·문화와 관련하여 고정관념·편견·차별의 해소를 위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내용점검	6	인종적·문화적 편견과 관련된 교육내용이 있는지 점검(수업안, 활동지, 텍스트 등)하고 있다.	1	2	3	4	5
	문화반영	7	다문화가정 원나라의 민족음식, 명절, 의상, 위인 등 문화가 반영되어있다.	1	2	3	4	5
교수학 습방법	학습전략	8	다문화가정 학생이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수업 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교육자 료	자료개발	9	다문화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1	2	3	4	5
	자료활용	10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1	2	3	4	5

\* 출처: 이룬, 장경원(2016)과 강영은(2016), 이울경(2017)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함.



\*해당 수업지도안의 장점과 학교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적어주세요.

\*본 수업지도안에서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적어주세요.



<부록-2> 수업기록지

<p>●6차시의 수업활동 및 감상의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지입니다. 매 수업을 진행하고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적어주세요.●</p>		
<p><b>수업기록지</b></p>		
수업 차시	핵심내용	감상 및 기록내용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p>&lt;6차시의 모든 수업 후에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기록하세요. '정체성'에 집중해서 기록해보세요.&gt;</p>		